



20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오늘

◆
자활 성공 · 공로 수기집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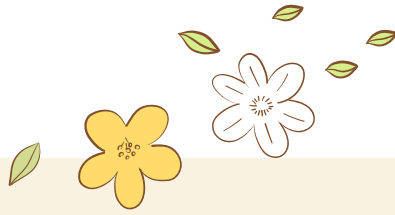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축사



「자활사업 성공 및 공로 수기집」의 스무 번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성공사례가 담긴 성공 수기 20편과 자활 담당자의 자활 공로사례가 담긴 공로 수기 6편이 담긴 이번 수기집 또한 많은 분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상 수상자인 이수현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힘든 와중에도 자활사업에 참여했고, 카페 사업단부터 행정업무까지 경험하며 더 큰 꿈과 목표를 세워 또 다른 길을 향해 가는 다짐을 수기를 통해 솔직하면서도 담백한 어투로 전달해주었습니다.

성공 수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위씨는 한 가지 분야에 머물지 않고 공인중개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딸과 함께 일궈온 삶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고, 공로 수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은지씨는 용인시 캐릭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며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수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수기집에 실린 수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관심과 도움으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애쓰고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자활

실무자분들의 하루를 응원하며, 그 속에 담긴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일선에서 느낄 수 있는 실행력 높은 정책이 이뤄지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이 수기를 작성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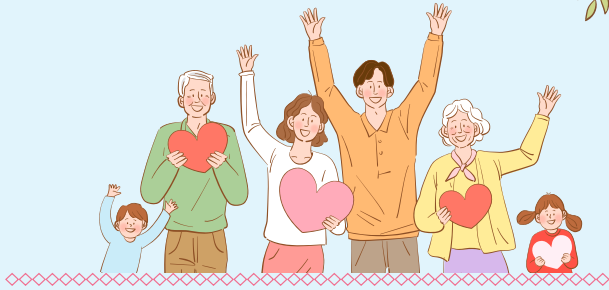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장관

조 규 홍



목 차

성공 후기



대상

- 08 • 자활센터와 함께 하는 희망의 발걸음, 내 뒀을 다하는 미래를 위해 이수현 / 서울

최우수상

- 14 • ‘빛나’는 내 인생 강위 / 울산

우수상

- 21 • 나에게 늦은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경식 / 전남
24 • 나는 매일 성장한다. 자활센터와 함께! 김미선 / 강원
30 • 전국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김혜란입니다. 김혜란 / 경기

입선

- 36 • 벼랑 끝에서 찾은 작은 희망 장명희 / 경기
40 • 나는 당당한 자활기업 여성대표이다. 김학선 / 경기
44 • The key is time, not timing; 나의 가치에 꾸준한 노력을 적립하자! 문찬우 / 서울
48 • 나의 자활 해방일지 김진희 / 대구
54 • 나는 당당한 자활맨, 희망으로 다시 서다 최영수 / 서울
58 • 미끄럼틀 같은 세상에 계단이 되어준 자활 최용석 / 광주
62 • 삶의 끝에서 찾아온 희망의 문으로... 금태현 / 부산
67 • 나의 자활취업 성공기 이효순 / 서울



- 71 • 누가 인생을 60부터라고 했던가? 나의 인생은 자활에서부터다. 장은주 / 강원
- 76 • 나는 당당한 수급자, 탈수급하다. 이정민 / 제주
- 80 • 이슬 맞고 자는 사람에게 새로운 동지가 되어준 자활 장창원 / 경기
- 86 • 혼자가 아닌 나!! (희망의 문) 이종식 / 서울
- 92 • 시련을 기회로 이복순 / 충북
- 96 • 여름의 녹녹함에서, 가을의 산들바람으로 안소희 / 경기
- 100 • 용기가 되어준 희망키움통장 김지혜 / 제주



공로 수기

최우수상

- 106 •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전국 최초 자활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다 오은지 / 경기

우수상

- 112 • 믿어요 강다은 / 경기
- 118 • 우리들의 블루스 최수안 / 강원
- 123 • 욕심의 반대편에는, 국준혁 / 광주

입선

- 127 • 취업을 위한 용기있는 도약의 한걸음, 희망으로 나아 가다 김혜선 / 충남
- 130 • 춤추는 고래처럼 자활을 위한 힘찬 움직임을 위하여 최인혜 / 부산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오늘

자활 성공 · 공로 수기집



**자활사업
성공 수기**

자활센터와 함께 하는 희망의 발걸음, 내 몫을 다하는 미래를 위해

「이수현」서울

5년 전, 20살이 됨과 동시에 불행이 연달아 찾아왔다. 대학교를 다니다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1학기 만에 자퇴를 하고 병원들을 돌아다녔다. 같은 해, 어머니가 간질로 쓰러지셨고 그 길로 돌아가셨다. 알코올중독으로 매일 술을 드시는 어머니와 싸웠던 기억 밖에 나지 않아서 매일 밤을 후회로 지새웠다. 몇 개월 동안 폐인처럼 지냈는데 유치원 때부터 알던 친구들과 친구들이 다니던 교회 집사님의 도움으로 커피수업을 받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사람들과 어울려 커피수업을 받다가 홈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곧이어 커피 어드바이저 과정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폐결핵으로 입원하셨다. 3개월 입원치료 하면 퇴원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 케어를 했다. 그러다 커피 어드바이저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폐에 있던 염증이 심장까지 번져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9개월 만의 일이었고, 멀쩡한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후 불과 몇 시간만의 일이었다. 나의 하늘이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처참히 무너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은 커피 어드바이저 자격증은 전화해서 알려줄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더 처절히 느끼게 했다.

나는 옛날부터 아버지를 정말 많이 의지했고, 아버지도 내가 다 커서까지 딸바보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우리는 사이좋은 부녀지간이었다. 홀로 남은 아버지한테라도 효도하며 살아야지 싶었는데 그 한 자락 남은 삶의 의욕마저 사라졌다. 나는 또 다시 집에 틀어박혔다. 생면부지 나를 위해 친구 교회에서 모아주신 부조금과 당시 미성년자였던 동생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 간간히 살았다. 조건부 수급자로서 조건이행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내 앞으로 나오는 돈은 없었지만 나를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다.

나는 동생의 고등학교 졸업식조차 친구들한테 맡길 정도로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공황장애가 심했다. 친구들과 집사님이 직접 집 앞까지 데리러 오는 정성에 한 달에 두어 번 씩 교회를 가는 것이 외부활동의 끝이었다. 구청에서 자활에 참여해보자는 전화가 왔었지만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사소한 이유로 거절 했었다.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지만 온전히 혼자 남은 동생 생각에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진료를 받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도와주신 것이 감사해서 교회도 다녔다. 그렇게 최소한의 외출만 한지 1년여 만에 겨우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구청에 전화해서 자활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출근한 것이 자활센터와의 첫 만남이었다. 당시 게이트웨이 담당자는 내게 커피 자격증이 있으니 최근에 생긴 카페 사업단에 참여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구청에서 상담할 때부터 바라던 것이었기에 바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곧 카페 사업단 담당자와 상담하고 실습날짜가 정해졌다.

실습날짜가 정해진 다음날, 이전에 신청했었던 S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나는 사지육신 멀쩡하고, 나이 어리고, 청약통장도 신청 후에 겨우 만든 상태라서 SH청약을 신청 하고도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기에 잊어버리고 있었다. 기대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일까,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전화를 돌리는데 내내 울기만 했다. 당시 카페 사업단 담당자도 크게 축하해주셨고,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해독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이사할 수 있었다.

그 후, 카페 사업단에서 실습하고 곧바로 일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낯도 많이 가리고 처음 해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생활에 긴장을 많이 했지만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금방 적응했다. 커피 메뉴들은 곧 잘 만들 수 있었지만 사람 대하는 것이 서툴러서 고객들과 크고 작은 트러블이 조금씩 생겼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람자체를 어려워했는데 센터와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담당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성실하고 꼼꼼한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다수 가지고 있던 터라 담당자의 신뢰와 의지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 전 센터 송년파티 때,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사업단 대표로 PPT를 만들어 1년 동안의 실적을 발표했다.

카페 사업단에 있으면서 업무, 외부 행사(케이터링·마켓), 메뉴개발, 인테리어 등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법,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그저 평범한 카페 알바생에 불과했다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겠는가.

카페 사업단 참여를 시작으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꾸준한 외부활동을 늘리기 시작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정신의학과에 내원했는데 약을 그만 복용해도 되겠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금방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흔치 않다며,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에도 가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또한 사람들과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온전히 끊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카페 사업단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카페 사업단 담당자가 센터를 그만두었고, 문제에 대한 빠른 대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신이상자가

카페에 반복적으로 출입하며 성추행성 발언을 했다. 나는 이로 인해 신경과민증과 공황장애가 도져 제대로 된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 그 곳에 있는 것이 고통 그 자체였기에 결국 사업단 전환을 요청했다.

새로운 카페 사업단 담당자와 주민지원팀 팀장님과 상담했고,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게이트웨이 선생님은 내가 컴퓨터 자격증이 많으니 행정업무도 잘 할 것 같다 하시고 자활도우미를 권유하시며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나는 내 나이가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격증도 학생 때 취득한 것이라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또 팀장님과 처음 상담할 때, 자활도우미의 업무를 설명해주시면서 그 정신이상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 참여주민들 응대도 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하시고 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게이트웨이 선생님과 한 상담은 카페 사업단에서의 일을 생각나게 했다. 정말 많은 업무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보람을 느끼며 재밌어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PPT를 만들고, 메뉴개발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집중도를 높여 나 자신과 씨름하는 일이 나에게 잘 맞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게이트웨이 선생님이 별 것 아니라 여긴 내 능력을 인정해주신 것이 트리거가 되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상담 때, 깨달은 바를 말씀드렸고, 꼭 하고 싶다고 했다. 게이트웨이 선생님은 본인도 같이 일하고 싶었다, 나중에 반드시 자활도우미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흔쾌히 사업단 전환을 도와주셨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니 엑셀과 한글을 다룰 일이 정말 많았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고등학교 때 취득한 것이었지만 다행히 머리에 꽤 남아 있었고, 미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은 실무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넷의 도움을 받았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복잡한 함수를 해결해서 제대로 된 값이 나오면 어려운 게임을 클리어 한 듯한 성취감이 있었다. 또 나는 그저 게이트웨이 업무에 대한 보조만 했을 뿐인데 이에 대한 참여주민들 분들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으면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전화응대나 참여주민을 대하는 일은 다행히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카페 사업단에서 쌓인 CS 경험 덕분에 어렵지 않다고 느꼈다. 물론 카페 고객을 응대하는 것과 달라야 하기에 초반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들으면서 감을 잡았다. 내 업무가 아닌 일로 화를 내거나,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카페 사업단에 비해서는 세발의 피 수준이었다. 마지막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헤어진 사업단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힘들었던 경험들이 자활도우미를 하는데 있어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경험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활도우미를 시작하기 전, 카페 사업단에서 2년 정도 일한 것이 커리어의 전부인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도우미는 내 가능성을 발견하는 귀한 경험이 되고 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반복되는 매일에서 오는 평안함, 경험이 쌓여가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이를 누리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최근에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 치과치료 의료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처음에는 치과치료 받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평생 참으며 살려 했었다. 그러나 내게 마음과 관심을 쏟고 계신 게이트웨이 선생님이 내 상태를 신경써주신 덕분에 신청할 수 있었다. 선정된 이후에도 자기부담금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팀장님의 강한 권유 덕분에 무서움을 이기고, 270만원의 지원을 받아 치료중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주변사람들에게 치과 조기치료에 대해 열성적으로 얘기하고 다닌다. 현재는 일본어 마스터라는 목표로 공부 중에 있고, 이후에는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등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언젠가 미래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한다. 그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자활센터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이 성인이 되면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꿈을 향한 목표의식이 상실되었고, 그 상태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금이 너무 좋아서

현실에 만족해 미래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 아니, 회피하며 살았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지금 이상의 것을 누리는 것은 욕심이라며 상한선을 두고 나를 끌어내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자활수기를 위해 지난 5년을 되짚어 보고 상담도 하면서 그 행복의 방향을 조금은 틀어볼 용기가 생겼다. 당장 어떤 것을 원동력으로 삼을까 하다가 역시 나는 지금처럼 현실에 만족하며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삶이 행복하다.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하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잘 아니까. 이것을 먼 미래에도 영위하기 위해 내 집 마련과 탈수급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다. 욕자는 너무 먼 꿈이라고 타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 걸리는 여정이라도 목적지가 없어 한 장소에만 머무는 길 잃은 어린 양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며 앞서 서술한 과정을 조금씩 밟아나가며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나를 포기하는 방법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없이 나를 낮추며 살아왔다. 그랬던 내가 스스로의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감사한 분들에게 표현하고, 나 자신을 찾아 한 사람의 몫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자활센터와 관심을 아끼지 않아주신 실무자 선생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빛나’는 내 인생

「강위」울산

“우리, 이혼하자.” 3년간의 결혼생활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어쩌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라고 말해. 제발.”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스물넷, 서로밖에 모를 정도로 미친 듯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스물다섯, 사랑만 있던 현실은 감당하기엔 무거웠고 벅찼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녀는 딸아이와 둘만 남겨두고 우리 곁을 떠나갔다.

2015년 아주 시렸던 겨울은 어쩌나 춥던지 고사리 같은 딸 손을 꼭 잡고 정착할 곳을 찾아 고향인 청주를 떠나 연고도 없는 부산에 있는 초량이라는 동네에 처음 갔던 날이 생각난다. ‘제발 저집만 아니었으면’ 공인중개사를 따라 걷던 길 “이 집이 보증금 백만 원에 월세 이십오만 원이에요” 그렇게 나는 딸아이와 부산에 살게 되었다.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철거를 앞둔 쪽방촌이라 차는 들어갈 수도 없는 도로였고 언덕을 한참을 올라가야만 했지만 아이를 보며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내야만 했다. 어린이집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돌보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었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내 삶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다. “○○야,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우리 ○○ 잘할 수 있지?”
네 살밖에 안된 딸과 눈높이에 맞추어 인사를 하면 딸은 항상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여주었다. 아직 아기인데 울거나 보채지도 않는 딸이
기특하면서도 늘 미안했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며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다. 육아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고 우연히 공인중개사 인터넷 광고를 보게 된후 공인중개사 공부나 해볼까
생각했지만 내 형편에 강의를 들을 돈이 없었고 무료 강의를 찾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는 시간을 쪼개어 하루 2시간만 자고 독학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합격을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6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합격을 따냈다.
“○○야, 아빠 합격했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자격증이 생겨 취직을 했고 직업 특성상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야, 몇 달만 더 있다가 여기보다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나는 딸의 미소에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행복이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야, 왜 그래.”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울다가 피를 토 했다. 귀에 열을 재 보니 39도가 넘었고
너무 놀란 나는 아이를 업고 슬리퍼를 신고 미친 듯 이 가파른 산동네 언덕 위를
뛰어서 내려갔다. ‘○○야 제발’ 별일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딸은 폐렴 진단을 받게 되었고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집이 습하거나 곰팡이가 있으면 폐렴이 걸리기 쉬운 환경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게 다 내 탓 같았다. ‘왜 하필 가진 것 없는 부족한 아빠에게
왔니’ 눈물이 비처럼 계속 흘러 내렸다. 아이는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어렵게 취직한 공인중개사 일도 계속 소퇴를 하거나 결근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나는 낮에는 택배차량탁송, 전단지 배포 일을 하였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근근이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보호자에게 “저희가 사실 한 부모 가정 인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딸이 혹시 자다가 깨면 저한테 전화 좀 해 주실수 있을까요?” 병실 옆자리 아이가 바뀔 때마다 병실 보호자분들께 부탁을 하고 일을 하러 갔다. 그때마다 뒤에서 작게 들리던 말 “에고 아기가 어린데 딱하네 엄마도 없는데”였고 나는 못 들은 척해 버렸다.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지’ 막막하기만 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로 했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제과·제빵학원에 등록하게 되었고 단숨에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 씨 우리 베이커리에 일해 볼 생각 없어요?” 제빵학원 선생님이 좋게 보셨는지 취직을 권하셨고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창업을 한다는 건 꿈이겠지’ 판매 메뉴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일을 했지만 창업은 내 이야기가 아니었고 꿈이 멀어져만 갔다.

우연히 현대자동차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주관하는 ‘기프트카 캠페인’을 보게 되었고 어차피 신청해도 안될 텐데 내 팔자에 무슨’ 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8 사연의 주인공에 당첨되신걸 축하드립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온 세상이 정지된 듯 내 몸도 움직일 수 없었고 기프트카는 나에게 찾아온 천사의 손길이었고 육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일터이자 희망이었다.

“○○야 아빠가○○ 좋아하는 파배기 만들어서 팔아볼건데 어때?” 딸아이는 엄지척을 들어줬고 메뉴는 찹쌀 도넛, 찹쌀 파배기 두 개로 장사를 시작 하게 되었다. “아빠 언제 집에 와?” 혼자 집에 있는 아이 때문에 빨리 팔고, 빨리 집에 가는 목적으로 박리다매 방식을 고수하였다. 단골손님들이 늘어나고 인지도도 쌓이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초밥 사주세요” 이젠 딸이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사주는 능력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었다. ‘더 열심히 일하자’

그러나 행복도 잠시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자 주변 자영업자들이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아졌고 장사를 하던 중에 수시로 단속반이 오면 이동을 해야 했다. ‘이 반죽이랑 기름을 다 어찌지’ 그때마다 뜨거운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기름 솥을 그대로 싣고 다니느라 팔지 못하고 남은 반죽들은 그대로 버려져야만 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KBS인간극장 제작진입니다. 사연을 알게되어 연락드렸어요. 입학을 준비하는 한 부모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출연을 제의하고 싶어서요” “나 혼자였으면 출연을 했겠지만 딸이 엄마 없이 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딸에게 상처가 될까 봐 못할 것 같아요.”라고 거절을 하게 되었다.

“왜 길 막고 장사를 해”하고 아무 이유없이 돌을 던지는 노숙자와 침을 뱉고 가는 할아버지들도 계셨다. “할아버지 파배기 드셔 보세요” 나는 웃으면서 파배기를 손에 들려주고 돌아와 일을 계속하곤 했다.

“아빠 심심해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집에 혼자 뒹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루종일 차에 가둬두고 있어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다시 KBS인간극장 출연 요청이 들어와 고심 끝에 촬영을 하기로 했고 한 달 정도를 딸아이와 나의 일상생활과 푸트트럭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찍어갔다.

그 방송을 계기로 장사가 잘 되었고 더 이상 아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상권이 좋은 정관 신도시에 아주 작은 파배기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다. ‘○○ 야 아빠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이상 고생 안시킬게’ 파배기 집을 오픈하던 날, 딸과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서 딸아이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장사는 너무 잘 되었고 전국 각 지역에서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셨다. ‘나도 마음을 나누고 싶다’ 받은 나눔을 보답하고자 푸드트럭 할 때 알게 된 베이커리 사장님들과 함께 보육원에 나눔을 하기로 했고 주마다 찹쌀파배기와 도넛을 나눔을 하였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푸드트럭에서 내 가게까지 생기는 기적이 생겼고 그분들의 사랑이 나에게는 금보다 소중한 것이었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셨다. 이걸 나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고 매장을 한 개 더 오픈했다. ‘COVID-19’로 인해 거리에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매출이 하락했다.

“사장님 ○○이 옆 건물에 가게 오픈한다고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내가 아는 기술을 전부 다 가르쳐 주었는데 믿었던 직원은 내 가게 근처에 파배기 가게를 오픈하였고 유행처럼 파배기 집이 6개나 생기게 되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분점이 문을 닫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내 꿈이 사라지는 빈털터리가 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다 끝이다. 내 딸은 어찌지.’ 갖고 있던 차와 돈이 될만한 모든 것을 팔고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각종 심부름 대행 일을 하며 겨우 버티고 버텼다. 하루하루 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더 이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기초적인 생활조차 힘들어 동사무소를 찾아 내 사정을 설명했다. 나는 그렇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쌀과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 후 몇 달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실의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분점이 있던 울산시 울주군에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하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고 뜻밖의 기회로 울주군청 주무관님께서 내가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고 자활센터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셨다. 차분하고 밝은 자활센터 팀장님께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울주지역자활센터입니다. 자활참여 신청을 하셔서 참여 안내를 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언제쯤 시간이 편하세요?” 이것이 자활센터와의 첫 만남이었다.

며칠 후 울주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선생님 두 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자활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를 설명해 주시며 자활근로를 하면서 목표가 무엇인지 적어보라고 하셨다. 그때의 나에게는 목표가 없었던 것 같다. 목표라는 단어가 마냥 이상적이었고 단어 그대로 목표였다. 나는 9급행정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적었다. “우와 선생님 9급 공무원이 꿈이세요? 정말 멋져요”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고 공부에 대한 욕심은 늘 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기억이 난다. 자활사업에 참여 후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나는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일을 하였다.

“선생님들 혹시 자격증 따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선생님이 물어보셨고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신청 모집을 한다고 했다. 나는 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활센터 팀장님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팀장님이 다양한 자격증들을 안내해 주셨다.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요” 그중 ‘대형면허’에 관심이 있었다.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사업단 중 홈 도우미 기동대에 관심이 많았다. 취약계층에게 생활불편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좋았고 전구, 수도꼭지 교체, 하수구 막힘 뚫기 등 기동 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일이다. 나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팀장님 저 합격했어요.” “우와 진짜요? 대형면허 어렵다던데 대단 하시네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 합격 소식을 알렸고 나는 팀장님의 도움으로 ‘대형면허’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면허를 취득한 나는 지금 자활센터 사업단에 배송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고 현재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수료하여 카페 사업단에서 바리스타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빚 정리와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사업을 할 때 생긴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생겼고 방법을 몰라서 팀장님에게 상담 요청을 하였다. 팀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개인파산 신청도 하게 되었고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 다시 희망의 길로 이끌어 준 울산 울주지역자활센터는 내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이 되었다.

앞으로는 소중한 내 딸 ‘○○’와 함께 나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날 일만 남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나에게 늦은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경식」전남

2017년 1월 장흥지역자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포기할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엇을 해보겠다는 마음도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활은 그저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녀야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그런 곳이었습니다.

2014년 신장 수술을 한 후 홀로 지내면서 건강관리도 돈 관리도 하지 않고 면사무소 공공근로와 집 앞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하게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자활센터의 사업단 선택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한다는 그린환경사업단으로 정하고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분리... 그럴 싸한 말로 포장했지만 현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재활용품들은 생활 쓰레기와 섞여 들어오기 일쑤였고 그만큼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겨울에는 사방이 트여있어 추웠습니다.

사업단에서 근로하는 동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사업단에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단에

갈 수 없어서, 할 줄 아는게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사회에서는 ‘3D업종’이라는 말로 이 사업단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2년간의 사업단 현장 근로는 어려웠지만 저에게 근로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느슨했던 저의 생각은 자활센터의 직무·소양 교육으로 자활근로 이후의 삶을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자활센터의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2018년에는 학교 안전지도관리사, 2021년에는 방역관리사 자격증 취득 등 제 개인의 가치를 찾고자 했으며, 2019년에 가입한 내일키움통장은 2022년 12월에 자활기업 취·창업을 통한 지급 해지로 종자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의 금융사례관리를 통해서 내일키움에 가입한 해인 2019년부터는 읍내의 주공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그냥저냥 살아가는 생활에서 자활에서 근로를 하면서는 혼자이기에 더욱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에서 배운 것은 3D업종이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3D업종이라서 수익이 더욱 발생하는지도 모릅니다. 자활팀장님의 자활 창업 설명을 들으면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코그린협동조합”그래, 연꽃은 진흙탕에서 핀다고 했던가요. 저는 자활팀장님과 함께할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변두리에서만 있었던, 수급자로서의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분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자활기업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노력도 함께 말합니다.

2022년 1월 드디어 우리는 “에코그린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할 가족 세분을 더해 총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활기업 창업교육을 받고, 1월에 사업자등록증과 자활기업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기쁜마음과 두려움이 혼재하는 말로

표현하기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자활기업은 1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급여 이백여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청사진은 1년 동안의 자활기업 적응기간을 지나서는 3년동안 매년 1명씩 조합원을 늘려 2025년에는 7명의 에코그린협동조합 가족을 이루어 소외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 나무는 잎이 남아있지 않지만 죽은게 아니라는 것과 다시 피울 때까지 묵묵히 찬바람을 견디며 준비하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저도 위와 같습니다. 예순둘이라는 나이에 저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 젊은 나이에도 봄은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내버리고 힘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에게 늦은 봄이 왔습니다. 이번 봄에는 꽃씨를 심었습니다. ‘자활기업_에코그린협동조합’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피우고 싶습니다. 봄...꽃씨는 이미 심었습니다.

수급자로 만난 자활센터에서 차상위로 현재는 보호구분 없는 일반인인 자활기업의 대표로 자활센터는 저에게 희망을 이야기해주었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7~8월 여름이면 연꽃이 피니다. 저는 연꽃을 보면 청아해짐을 느낍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 자활기업도 열정 가득한 뜨거운 여름에 청아한 꽃을 피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연근을 채취할 것입니다. 우리 자활기업_에코그린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는 조합원들에게 새 희망의 씨앗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함께 이겨내고 다시 봄을 맞이 하겠습니다.

예순둘 저에게 찾아온 늦봄도 좋지만 어렵게 건디신 조합원들에게는 저보다 이른 봄이 오길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자활센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과 함께 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성장한다. 자활센터와 함께!

「김미선」강원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의 결혼생활은 아픈 생채기를 남기며 끝났고 이혼 후 두 아이와 월세방을 전전하다 버거운 몸으로 아이들과 친정아버지가 사시는 삼척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한 보금자리는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시골이라 집에서 온종일을 지내다 보면 삶이 무력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져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다리에 올라가셨다가 발을 헛디디어서 떨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입원하게 되었다. 폐가 워낙 안 좋아 수술을 하면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에 대한 정은 많지 않았지만 이혼 후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기대게 되면서 고령에도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가장으로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입원하신 병원이 너무 멀어서 아직 아이가 어린 내가 간병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선은 가족들끼리 돈을 모아서 간병인을 썼고 그 간병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병원비보다 더 많이 들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퇴원하시면 거동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 재가 요양을 신청하려 했지만 고지식하신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은

싫다고 거부하시고 재가를 신청하되 내가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센터에서 취업패키지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여 고용보험 센터의 도움으로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몇 달을 학원과 실습 시험을 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재가 돌봄을 위해 지정받은 가정을 방문, 어르신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혼자서 걷다 또 넘어지셔서 수술한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내용이었다. 병원에서는 폐도 안 좋고 이번이 두 번째라 연세도 있기에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 내가 살려 보겠다는 결심으로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재가 돌봄을 다니면서 아버지를 챙겼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가망이 없다는 말에 가족들은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습을 나가보니 절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기가 싫었고 경제적 여력 또한 없어 힘들 거라는 가족들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다. 하지만 집에 오시고 난 후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던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셨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마셨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는 처음의 무기력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삶은 나를 망연자실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넘기도록 놓아두질 않았다. 나에게서는 먹이고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유지하기 위해 재가 돌봄 근로를 하였지만 출산 후 얻은 고질적인 디스크와 흉추 협착을 앓고 있던 나로서는 한집 재가 돌봄이 내가 할 수 있는 근로의 최선이었다.

버겁던 생활로 지내고 있을 때 시청 복지과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수급권을 유지하려면 3인 가족 80만원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몸이 안 좋은 내 상황을 얘기하니 자활센터로 연계해준다고 참여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셨다. '무엇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별 기대없이 자활센터로 가서 상담받은 것 같다.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친절하게 나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담하여 주었으나 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을 일해야 된다고

하였다. 자활근로는 종일반만 있냐는 문의에 현재는 그러하다는 답변을 들으니 걱정이 앞섰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자활센터가 있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근덕면에서도 더 들어가는 시골이어서 대중교통이 매우 뜸하게 다녔기 때문에 출근도 그렇고 아이들 등하교와 나의 출퇴근까지 시간을 계산해서 버스를 타려 이리저리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자활근로가 맞지 않겠다는 생각에 밤새 고민을 하였지만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없었고 나와 아이들이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다음날부터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았다.

게이트웨이 교육을 통해 미술, 심리치료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우울했던 감정들도 사라지고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도 생기게 되었다. 다행히도 나의 사정을 알고 센터에서 저학년,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주었고 게이트웨이를 마치면서 국물 육수를 내는 다시팩을 만드는 사업단의 초기 멤버가 되었다. 당시는 사업단 신설 초기라 나를 포함, 겨우 2명이 자활근로를 하였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인원이 한 명씩 늘었다. 한국 사람도 있었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아기 엄마들도 있었다. 2명이 일 할 때는 인원이 더 있으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으나 웬일인지 사람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 의견과 성격 차이로 불화가 발생하였다.

의사소통에 문제로 인한 오해와 문화적으로 근로에 대한 기대와 서로의 노력이 달랐기 때문에 거의 매일 작고 크게 다툼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담당 팀장님이 중재하고 초기 멤버 위치에 있던 내가 현장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자활센터에 오기 전에 다양한 일을 해보았지만 새로 만들어진 사업단이다 보니 상품 개발, 홍보, 다시팩 제작, 판매와 택배 작업까지 해야 해서 그야말로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았다. 다 하기 싫고 그냥 ‘출근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사업단 이름이 ‘웰빙삼척담다’로 정해지고 다시팩과 과일칩을 판매하는 사업단으로 결정이 되고 여러 번 제품을 만드는데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과연 이 사업단이

잘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활센터 사업단 팀장님은 특유의 여유로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 시작인데... 다 잘 될 것”이라며 우리들에게 긍정의 마음을 심어주셨다. 새로운 사업이라 바쁘텐데 사업팀장님은 일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상담과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었다.

2018년 처음 자활근로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상담과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생판 남인데 팀장님과의 상담으로 밝은 에너지로 우울하던 생각이 바뀌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다. 오랜 시행착오로 처음으로 만든 다시팩과 과일칩이 판매되었을 때 얼떨떨하면서도 뿌듯한 보람과 성취감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아니 우리가 만든 제품이 시중에 팔리고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을 통해 팔려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댓글을 읽게 되니 감격스러웠으며 제품의 사진과 금액, 할인 내용을 온라인 마켓에 올려 그것이 화면으로 보이게 되니 신기하고 내가 대견하게도 느껴졌다.

아이 교육으로 인한 고민을 상담하던 중 게이트 팀장님으로부터 상담 중 “미선씨는 글씨도 잘 쓰시고 상당히 똑똑하신데 아이 학습에도 도움이 되게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 어때냐?”라며 상위학력 취득을 도전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첫 아이를 낳은 나는 중학교까지 밖에 다니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지만 공부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팀장님의 권유로 내 삶에도 ‘꿈’이라는 것을 다시 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오전 자활근로를 마치면 귀가하여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부하였다. 3년간 주말엔 빠지지 않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석해야했기에 일주일을 꼬박 쉬지도 못하였지만 학교에서 나보다 연배 높은 40~60대의 학업 열성을 보니 자극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였던 것 같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앞으로의 취업을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과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 센터에서 해마다 지원금을 통해 운영하는 자격증 과정을 통해 운전면허, 바리스타와 컴퓨터 자격도 취득하였다. 하나씩 도전하는 것에 좋은 결실을 보니 욕심이 생기고 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그건 바로 대학교! 입학을 위해 팀장님과 상담을 하고 자활근로와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에 관한 정보를 듣고 센터에서 안내하는 세계 사이버 대학에 입학 했다. 학과를 선택할 때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

자활센터에서 근로하는 사회복지사를 보며 힘들기는 해도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내가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인 자활센터에서의 경험이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레포트와 인터넷강의, 중간, 기말시험 등등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다보니 피곤하긴 했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할까? 배움은 나를 계속 성장시켰고 지식과 더불어 이 세상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일들도 보이는 것 같았다.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에 자극을 받았던지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학을 안 가겠하던 큰 아이가 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니 in 서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했다. 속상했던 것은 평생학습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라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는 달리 향토 장학금과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활센터 들어오면서 가입한 팀장님 권유로 들었던 내일키움 통장과 아이 앞으로 든 디딤 씨앗 통장 자금을 통해 1학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은 학업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다시 삼척으로 내려왔으며 이를 연속으로 가는 등교 해야 하는 날에는 근처 모텔을 잡아 숙박을 해결했다. 가난이 힘들기는 했지만 아프지는 않았는데 엄마가 되어 창창한 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죄스럽고 마음 아팠다. 역경 속에서 더 단단한 성장을 기대하며 ‘짧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 어른 말씀을 들려주며 격려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평생학습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학생이라도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동일한 기회와 지원을 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다. 지난달 씩씩한 아들은 1학기를 마치고 자원하여 군입대 하였다. 내 학업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마련하겠다고 군 복무 중 급여로 적금을 들겠다고 한다. 고맙고 미안하다. 일찍부터 큰 아이는 철이 빨리 들어 마음을 들킬까봐 말도 강단 있게 하고

센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엄마의 어려움과 마음을 헤아려주어 미안함만 가득하다.

자활근로 하기 전 주변에 자활센터에 대해 물어보면 좋은 답을 들을 수 없어 자활센터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생계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걱정을 한아름 안고 근로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나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활근로를 권유하고 싶다. 나에게 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참여자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과 어려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는 곳이다. 아이의 학업을 위해, 어머니로서의 고민에 대해 귀 기울여 주었고 다양한 지원책을 알아봐 주었다. 집수리와 각종 자격증 취득 기회로 현재의 나의 생활을 보호받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일 경험을 통해 만능이 아니어도 부단한 노력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내년 2월이면 나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며 더불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더불어 4월이면 60개월 자활근로의 종료를 해야 한다. 그때가 되면 울타리가 되었던 자활센터를 벗어나 세상으로 날개를 펴고 싶다. 당당한 사회복지사로 나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말이다.

늘 혼자였고 늘 외로웠고 늘 자신감이 없던 내가 자활센터에 들어오고 난 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사람들과 상황을 이해해보려 노력도 하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도 생겼다. 기대 없이 들어간 곳,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곳, 그러나 지금은 나를 건강하게 바꿔준 자활센터에 감사하며 힘차게 내년을 기다린다.

우수상

전국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김혜란입니다.

「 김혜란 」 경기

저는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지역통합돌봄사업단에서 2년 넘게 어르신들 돌보고 있는 자활참여자입니다.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자활사업 성공수기 공모가 있다고 한번 써보라고 하셔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으쌔으쌔’ 힘내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전라남도 진도군에 속한 아주 작고 아름다운 섬 대마도에서 3남 4녀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 우리 가족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오빠 언니와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미용 업무 보조, 공장 생활, 재봉사 등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 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항상 노래를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우는 소녀는 돈이 없는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지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해 보고 싶은 거를 참아가며 집, 직장, 집, 직장만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 꿈이 없는 아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느 순간 힘들고 지치고 내 처지가 싫어서 세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여섯 식구가 살기에는 항상 부족했기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실도피인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23살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에는 결혼하면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내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깥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경제적인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고 남편의 외도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 함께 식당을 했는데 식당일을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장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와 가족들에게 풀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괴롭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가정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더 남편과 지내다가는 저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도망치듯이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로 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질 때로 망가지다 보니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쉼터에 덩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있는 저 자신을 보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를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행정복지센터 구직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구직상담사는 어떤 일을 원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으니 돈만 벌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사정을 다 확인한 구직상담사는 자활사업 참여를 권유했고 자활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무작정 자활센터 찾아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끌고 자활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상담을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사례관리 담당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의 꿈이 무엇인지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죽어라 벌어들여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담당자를 붙잡고 화를 내듯이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꿈이란 것을 꺾은 적이 없어요. 아니 꿈은 지금도 매일 매일 생기지만 제게는 사치고 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 같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선생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이곳에 계시는 동안은 고통은 줄어든다고 꿈을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기 계신 동안에는 울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2주간의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가진 장점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통합돌봄사업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단 담당자와 첫 면담을 하면서 어르신 돌보는 일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가능한지를 물었더니 담당자는 여기서 교육받고 일하시면 전국에서 최고로 어르신을 잘 돌볼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며 제게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사업 참여를 잘하려면 동기가 참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돌보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새 출발 하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는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 돌보는 게 쉽지 않지만 선생님 같은 마음이면 어렵지 않게 적응을 잘하실 수 있다며 정말 잘 오셨다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단에서 의뢰받은 어르신들은 고령과 복합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로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건강이 위협받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살아오셨기에 다른 사람에 도움을 받는 것도 말을 섞는 것도 불편하셨던 어르신들에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일을 천직으로 삼고 평생을 어르신들과 함께하자 마음먹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어르신 집에 밝은 미소를 인사하고 들어가서 자활센터에서 오는 도시락을 받아 식사를 차려드리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 어르신과 잠깐 담소를 나누고 집안청소와 밀린 빨래를 하고 나면 정해진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다음 어르신 집에 가기 위해 나가려고 하면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하면서 붙잡으시면 정에 이끌려 가다 말고 앉아서 어제 한 이야기를 못 들은 척 또 들어주는 일이 매일 매일 반복이 됩니다. 대부분 어르신이 아무도 없는 외딴 섬이라고 본인을 생각하십니다. 몇 년 동안 자식도 주변에 사람들도 다 떠나고 아픈 몸으로 그냥 집에서 우두커니 온종일 TV만 보다 보니 왜 사는지도 왜 먹는지도 모르고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서 청소도 해주고 외출도 함께하고 무엇 보다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세상 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그냥 대화만 하고 가도 좋다고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하시는 모습에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니 어르신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힘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다양한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니 어르신 특성에 맞는 돌봄의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 우울함이나 자살 충동이 강하신 어르신, 성적 관심이 높은 어르신,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식생활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등 보통의 접근 방식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사업단 월례회의 하면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수시로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필요할 때마다 받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담당자가 사업단 참여 초기에 이야기했던 전국 최고의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어르신들과 돌봄서비스에 집중했는데 자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대학입학을 앞둔 딸아이 학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입했지만 희망키움통장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되었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을 만들어준 돌봄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새로운 일을 찾기가 어려운 데 자활참여자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 오기 전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하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가정생활도 원만치 못했는데 여기에 와서부터는 꼬인 실타래가 한 번에 풀리듯이 술술 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과 밖에 나가서 삼겹살을 사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3개월에 한 번 고깃집에 가서 가족들과 회식하는 시간도 갖고 없는 돈을 쪼개서 적금 통장도 하나 개설했습니다.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로운 일을 해서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일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가족들과 원할 때마다 회식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을 보낼 수 있으며, 서비스를 마치고 인사하고 나올 때 환하게 웃으시며 오늘 수고했고 내일 또 보자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 다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를 타며 상상을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해지하는 날 멋진 사무실을 차려서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말이죠.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활센터에서 사업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담당자들이 저를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라고요.

제 인생의 1막은 1보 전진하기 위한 한발 물러남이었다면 자활사업 참여 이후의 인생 2막은 누구 앞에 서서도 당당한 자활에 성공한 전국 최고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김혜란입니다.

벼랑 끝에서 찾은 작은 희망

「장명희」 경기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2009년도 즈음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중국으로 탈북 하여 고모네 집에서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얼떨결에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 찰 줄 알았던 한국에서의 삶도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만큼 고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다시 북으로 송치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다른 한국인들의 선입견이 두려웠던 저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탈북민이 아닌 조선족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숨기며 살 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중국에서 알고 지낸 지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날들의 연속 이었습니다. 그렇게 한해, 두해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숨어 살아야 할까?”하는 생각에 앞길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고 두려웠습니다. 결국 몸도 마음도 지친 저는 가게 사장님의 계속되는 권유와 설득으로 관련 기관을 찾아가 탈북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원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도피생활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냥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평생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나가서 다시 일해야 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지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이러 고민을 하던 중 먼저 하나원을 나간 동료들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활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동료들을 통해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를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자활센터를 방문한다는 것은 한국을 처음 왔을 때처럼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홀서빙 같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해왔지 제대로 된 직장생활은 처음이라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고된 식당 일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잘 적응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배운 뒤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를 찾아오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센터 내에는 저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뤄진 사업단이 있었고, 사업단 담당 팀장님 또한 같은 북한이탈주민 이었습니다. 사업단 동료들과 팀장님은 누구보다 제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 해주고, 친동생처럼 잘 챙겨줘서 금방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품을 제작하는 업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 본적 없는 일이라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졌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직무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점차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정서적인 면과 취업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선입견들로 인해 탈북 이후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의기소침한 성향으로 변했었습니다. 그러나 자활센터를 다니면서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만나 위로를 받고, 탈북민이 아닌 다른 참여자들이나 센터 선생님들이 편견 없이 저를 바라봐주고, 이해와 배려를 해준 덕분에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제 본래 성격처럼 밝고 긍정적이게 변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의 경험이 없던 터라 자활근로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직장 내에서 규칙에 맞게 근무하는 법, 동료들과 소통하는 법 등 사회생활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상승한 저는 자활센터가 아닌 일반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런 제 목표를 상담할 때 사업단 팀장님께 말씀드리니 취업담당자 선생님을 연결해주셨습니다.

사실 일반기업 취업이라는 목표만 정했을 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일자리를 혼자 알아본 경험도 없을뿐더러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도 작성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장을 보태서 생사를 넘나들던 탈북보다 취업준비가 더 막막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취업 담당자 선생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자 선생님은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한 번도 희망 취업 분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취업 담당자 선생님은 같이 찾아보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듣고 경력과 성향에 맞는 분야를 추천해주셨습니다. 고민 끝에 자활센터에서 제조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살려 제조업 분야로 취업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취업 분야를 결정 한 뒤 담당자 선생님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취업정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워크넷 사용법도 안내해주셨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도 작성을 해본 적이 없는지라 혼자 작성하는 것이 막막했었는데 담당자 선생님의 컨설팅을 통해 입사 지원하기에 적합한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이력서를 들고 원하는 기업에도 지원해보고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 추가 지원하여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면접과정 또한 컨설팅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취업을 결심하자마자 바로 합격을 할 순 없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저는 점차 자신감이 붙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 과정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수록 정말 취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담당자

선생님과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취업에 성공했다니 정말 벅차오르는 기분 이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 이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에는 벼랑 끝에 서있는 기분 이었는데 비로써 탄탄한 평지에 올라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어 지내며 고생했던 지난 날 들이 주마등 같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결코 저 혼자서는 하지 못할 일들 이였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는 도움을 주는 고마운 동료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였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탈수급도 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수령조건도 충족하여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이후 급여도 많이 올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나와 보니 사람들이 선입견이 가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자활센터에서 만난 동료들, 선생님들과 연락하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활센터에 가게 된 것은 정말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찾게 해준 감사하고 고마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자활이라는 작은 희망 하나가 저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함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당당한 자활기업 여성대표이다

「 김학선 」 경기

나는, 평범한 주부였다. 1997년 IMF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컴퓨터개발 사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실패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다. 집도, 건강도, 애정도, 희망도 모두 잃고 얻은 건 빚뿐이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융채무보다
더 힘들었다.

어느 날 남편이 드림셋 프로그램을 주워들고 와서는 자활근로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비 20만원을 적립하면 20만원을 추가 매칭해주는 조건이 있다고 참여 제안을 했다.
그때는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때라 ‘누가 내 돈 20만원만 적립한다고 20만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덤으로 주겠는가? 사기겠지’라는 생각으로 단 번에 거절했다.

그 후 2~3개월을 종교에 의지해 나만의 어둠 속에서 보냈다. 남편이 다시
한 번 드림셋프로그램을 알아나 보자고 하여 거듭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마지못해
집을 나서 신용회복센터를 찾아가다. 신용회복센터에서는 성남시 사회복지과로
찾아가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동사무소로 가라고 한다.

마지못해 나온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다. 남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길거리에서 쏟아냈다. 남편은 미안한 마음으로 나를 계속 달랬다. 동사무소에 가서 안내받은 대로 신청서류를 작성하니 심사 후 적격 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는라는 답변이다. 억지 걸음이라 속으로는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사무소 문을 나섰다.

따르릉~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드림셋 프로그램 참여 적격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역자활센터로 가보라고 한다. 또 한 번 억지걸음으로 센터를 찾아가니 드림셋 사업단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된다고 상담을 해준다. 편의점 일이니 전업주부라도 천천히 적응하며 일 할 수 있을거라고 힘을 돌아준다. 그러나 힘은 나지 않고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든 남편에 대한 원망만 가중되어 퇴근하면 남편과 다투기 일쑤였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뼈뺏아여 허리부상을 크게 당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꿈쩍 못하고 누워서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내게 계속 일어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동안 종교에 의지하고 공부하고 성찰해왔는데 인간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보다. 종교에서 제일 기피하는 질투심, 원망, 미움 등의 감정만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외부에서 찾던 고통의 원인이 사실 다 내 마음에 있었던 거로구나! 내 마음부터 바뀌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원인이 내 안에 있었음을 느낀 바로 그다음 날부터 아픈 허리로는 출근을 감행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센터의 배려로 병원을 다니면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허리가 나으면서 마음의 병도 점점 치유되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열심히 일하다보니 급여 날이 되었고, 약속했던 매칭금도 쌓여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루하루 드림셋 사업단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간 것도 감사하지만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된 것이 더 크게 감사하다.

드림셋 사업단에서 3차, 4차 사람을 모집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 사업단을 종료할 해야한다며 다른 사업단으로 이전을 제안받았다. 어렵게 적응한 소중한 직장이라 다른 사업단으로 이전이 탐탐치 않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같은 고민에

빠져있던 성남지역자활센터의 드림셋 사업단 참여자들을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드림셋 사업단으로 흡수, 통합해서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바뀐 구성원들과 아웅다웅하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자활근로일자리라는 첫발을 디딘 소중한 직장에서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다.

3년의 자활근로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제는 일반직장에 취업을 해야 할 텐데 알아보니 지금 내 나이가 퇴직할 나이이지 채용될 나이가 아니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2년넘게 일하면서 빚도 갚고 종자돈도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고 더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하는 위기의식이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다.

▪ 또 한번의 기회, 자활기업 창업, ‘틀림이 아닌 다름’을 배워가다

그때, 또 한 번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기회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드림셋 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준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은 있었지만 다른 선택을 할 처지가 아니었기에 기업으로 창업하기로 결심하고 사업단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3명과 함께 4명의 공동대표로 2018년 12월 24일 성남만남드림점을 창업하게 되었다.

창업은 하였으나 기업운영 경험부족으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며 갈등만 깊어져서 화합되지 못했다. 깊어가는 갈등 끝에 2명의 대표가 그만두었고, 편의점운영 노하우가 있는 다른 대표를 영입하였다. 센터의 도움으로 갈등관리 컨설팅을 받으면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를 포함한 대표들이 모두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이다 보니 특히 예의를 강조했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갈등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해결하기로 규칙을 정하고 지킴으로써 서로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해갔다. 세 명이 각각 대외적인 총괄대표, 매장운영담당, 회계담당으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니 갈등의 요소는 훨씬 줄었다. 월례회의, 분기회의, 총회 등 회의를 정례화하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운영하다보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수익도 발생되었다.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금을 모아 2021년 8월에 성남만남드림2호점을 오픈하였다. 처음 성남만남드림1호점은 센터의 사업단을 전환해 창업한거라면 2호점은 우리가 직접 사업운영하여 모은 수익금으로 오픈한거라 더욱 더 기뻐다. 그리고 2022년 8월 27일에 드디어 성남만남드림3호점을 추가오픈하여 대표 3명에서 각 1점포를 운영하게 되었다. 다른 대표는 각 2, 3호점 운영자이고 나는 여전히 성남만남드림1호점을 지키고 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자 알바로 운영되는 보통의 편의점과 달리 각 점포마다 1명의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직원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절망속에서 만난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의 도움으로 이렇게 3개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로 성장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 성남만남드림점도 지금처럼 열심히 운영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

나는, 이제는 당당한 자활기업 여성대표이다.

The key is time, not timing; 나의 가치에 꾸준한 노력을 적립하자!

「문찬우」서울

대학교에 입학, 성인이 되었다.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빈곤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자존감은 상실되었고 도피처처럼 찾은 군대에서 시간이 더디게 가니 내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지기에 더 없이 좋았다. 하지만 전역을 하면 주체적인 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은 노력을 하기도 전에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현실에 부딪혀 입대 전과 다를 바 없이 집, 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레스토랑 이렇게 내 삶의 공간은 정해졌고 평범하고도 단조로운 2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단조로웠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는데 친구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오해들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기초생계급여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어 돈 걱정하실까봐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도 말할 수 없었고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나기 시작하여 또다시 생활고는 나를 무너져내리게 하였다. 내 인생은 꽃을 피우기는 커녕 뿌리마저 시들어가겠구나.

그 때 때마침 구청 자활지원팀에서 연락을 받았다. 자활사업에 대한 안내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단들을 소개받았다. 그 중에서 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던 갈현지역아동센터로 가겠다고 했다. 이 후 센터장과 면접을 진행하였고, 내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보조해야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며 지도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인터넷으로 서핑만 하던 내가, 극히 내성적인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는 말도 못 하겠어서 어지러운 내 머릿 속과 달리 속이 텅 빈 대답만 하고 면접은 끝이 났다.

2020년 6월 15일 갈현지역아동센터 첫 출근! 설렘가득하지 못한 걱정만 한 가득한 첫 출근, 아동센터에서 첫 출근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네. 네? 네... 넵!” 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창시절 옆 자리에 앉았던 친구와 1년동안 인사말 말고 대화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성별과 나이대가 다양한 이곳에서 적응조차 할 수 있을까?

나는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여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샌가 나는 아이들 앞에서 춤 선생님이 되어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생활이 어려운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맞벌이가정의 아이 등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많이 웃고 많이 떠들다보니 1년 6개월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버렸다. 아이들과 제주도여행을 같이 가고 직원들과 이별여행도 함께 하며 2021년 12월 14일 마지막 날까지 설렘가득한 출근이었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계기로 혼자서 좋아하던 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해맑게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나에게 가슴뛰는 일은 이런거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참여기간 만료로 자활근로사업 복지시설도우미 일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그만둬 자존감이 떨어진 그 때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나이에 자신감 있게 “서울청년센터 은평 오랑”에 지원하게 되었다. 면접과정도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에 당당히 최종합격하여 설렘가득한 출근을 시작으로 잘 할 수 있고 잘 해낼거라는 믿음, 지나온 길의 경험을 든든한 아군으로 삼은 채 지금까지 은평 오랑

청년거버넌스 사업 회계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나와 비슷한 연령의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고, 댄스 커뮤니티 모임장으로 역할을 하며 여러 청년들과 교류하고 직원들과 협업하고 있다.

지극히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지극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주위 사람들과 직장은 주체적으로 바뀐 내 삶에 큰 활력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게 한다.

빈곤은 되물림이라는 말처럼 아버지가 생계급여 수급자니 나도 수급자일 수 밖에 없었다. 대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다녀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고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젊은 사람이 생계급여 수급자고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존감 상실로 내 자신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고 웃을 일도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자활참여는 오히려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 역량을 키우며 자활하려는 의욕을 충만하게 자신감을 북돋아 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이다. 생활고라는 현실의 벽과 마주한 내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뭐든 해 낼 수 있는 멋진 나로 가슴 뜨거운 일을 하며 자활에 성공한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현재 직장에서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는 프로그래밍 개발자 공부를 다시 해 볼 생각이다. 전공이 아니기에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전무한 경험에 고민만 했었는데 지금은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처음이라고 못할 것 없다, 모르니까 한번 해보는거다. 라는 무한긍정의 도전적인 마인드가 생겼다. 요즘들어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의 변화에 내가 더욱 놀라는 중이다.

미국의 가치투자자로 유명한 하워드 막스는 한 인터뷰에서 투자의 성공비결을 “The key is time, not timing”이라고 표현했다. 성공한 인생까지는 아니여도, 나의 가치에 꾸준한 노력을 차곡차곡 쌓으면 언젠가 내가 바라는 멋진 미래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삶에서 가장 힘들 때 자활사업을 알게 되어 참여를 시작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결국 그 경험으로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하게 되었다. 인생은 한 방이라는 행운만 기다리기에는 내 삶이 녹록치 않았다. 그저 성실하게 내 삶을 살다보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행운의 기회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최근 3년간의 나의 삶에서 ‘첫’이라는 단어를 설렘가득한 느낌으로 바꾸게 해준 갈현지역아동센터 직원과 일을 통해 만난 다양한 인연들에게 감사하다.

내년에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얼마나 내가 성장해있을까.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노력하고자 한다. 미래에 개발자가 될지 춤 선생이 될지 아이와 청년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할지, 회계담당을 할지 또 다른 내가 되어있을 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나의 자활 해방일지

「 김진희 」 대구

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 준 2년 반 동안의 자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자활상담을 갔을 때 내 모습이 눈에 선하다. 당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2015년 12월 아랫집에 조현병 환자가 이사를 오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현관문에 고춧가루가 잔뜩 발려있고 김장김치로 보이는 김치가 문고리에 걸려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보관해 두었다. 일주일이나 지나 학원을 다녀 온 딸아이에게 위급한 전화를 받았다. 비닐봉투가 또 걸려 있다고... 사과 5개와 뜯긴 요구르트 5개, 쪽지였다. 쪽지의 내용은 밤마다 위층에서 누군가 찾아와 성폭행과 폭행을 한다는 것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가게 문을 닫고 한달음에 달려가 놀랐을 딸아이를 달랜 후 아파트 경비아저씨께 확인했더니 얼마 전 아랫집에 이사 온 아주머니가 술에 취해 경로당 정자에 누워 횡설수설 하는 걸 들었다 하시며 경찰에 신고를 권했고 하게 되었다.

경찰과 동행해 찾아 간 아랫집의 상황은 육안으로도 심각했다. 문을 연 순간 집안에서 술 냄새가 확 풍겼고, 온 몸을 덜덜 떨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병이 역력했다.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난방은 전혀 하지 않고 방한복을 겹겹이 입고 있었다.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피해자라며 경찰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출동한 2명의 경찰 중 한 분이 알아보았고“아주머니 이쪽으로 이사 오셨어요?”신고를 당할 때마다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쫓겨 다니다 아랫집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였다. 심각성을 느꼈으나 출동한 경찰은 보호자와 얘기하겠다고며 주의를 주면 괜찮으니 걱정 말라 하시고 가셨다.

그 후로 2년 동안 주거침입 등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을 하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옷가게까지 찾아와 업무방해를 했다. 밤마다 천장을 치고 고성을 질러 잠을 자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이들의 안정을 살피느라 내 몸 챙길 여유가 없었다. 아래층 주민은 악을 썰며 줄 보호자가 없이 혼자 생활하니 술을 마신 날은 행패가 더 심했다.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 우기고 병원비까지 내놓으라는 통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조현병을 10년째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직계 가족이 없고 재산이 있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1년 동안 끈질긴 재판을 통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집과 옷가게, 심신은 엉망이 되었다. 결국 15년 운영해온 옷가게를 폐업을 하게 되었고 채고로 7,000만원이란 빚을 지게 되었다. 피해의식이 생겨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웃음기 사라진 굳은 나만 남았다. 젖은 낙엽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짓밟혀 있었고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난 몸을 일으켜야만 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내 삶에 자활프로그램이라는 생소한 사업이 추천 되었고, 자격증이라도 취득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2019년 11월 11일 첫 상담을 받고 게이트웨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맨 처음 도자기 공방에 투입되었다. 용기를 내 시작했지만 지칠 대로 지쳐 있던 나는 낯선 곳, 낯선 사람에게 쉽게 적응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감은 점점 더 없어졌다. 자존감은 더 떨어져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했다. 게이트웨이 과정이 끝날 무렵 코로나 19가 발병했고 불안증이 심한 나머지 번 아웃이 왔다.

2020년 2월 19일 신천지 31번 확진자로 집에 감금 아닌 감금이 되었다. 불안증이 더욱 더 극심해졌고, 문 밖을 나갈 수 없었다. 냉장고 파먹기로 한 달, 지인들이 챙겨다 주신 재료들로 한 달, 한 달 버티기를 했다. 그렇게 3달을 보내고 정식 배치를 받았다.

담당자에게 처음으로 숙내를 드러내고 YWCA본부 민들레 가게로 배정을 받았다. 15년 옷가게를 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첫 날 대형 옷 박스 200개, 코로나로 엉망이 된 매장을 회복하는 데 야속하게도 허리가 받쳐주지 않았다. 한 달 동안 한의원을 다니며 복대를 차고 버텼다. 아파도 일을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 탓도 있었다. 덕분에 창고같이 어지럽혀 있던 매장을 편집매장처럼 깔끔하게 바꿔 놔다. 헌 옷들과 기부한 물품들이 누군가에게 쓰임 되 판매되는 것이 재미있었다. 허리 수술로 몸만 힘들지 않았다면 계속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곳이었다. 다시 공방으로 배치 되 일을 했다. 다양한 뜨개 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프리저버드 공예를 배우고 프리마켓 판매 매출 1등도 했다.

오랫동안 혼자 일을 해서 인지 여러 곳을 옮겨 재배치 받고 적응하는 공동생활이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너무 뛰어 난 것도 너무 모자라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온 몸 세포가 곤두서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다.

어디에나 귀인은 있다. 조현병 환자를 겪으며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겼는데 함께 자활하던 분께 학교를 소개 받았고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희망이 생겼다. 틈틈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의 환기를 시켰다. 주중 자활 근무를 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강의를 들었다.

입학 당시가 잊혀지지 않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누군가와 쉽게 친해 질 수 없었다. 하하 호호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쉽게도 친해져 어울렸다. 학회비라는 복병도 만났다. 생활비에 전혀 여유가 없던 나는 단체에서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자활이라는 현장에 있으면서 수업을 들으니 귀에 내용이 속속 들어왔고 이해도도 높았다. 배움이 정말 좋았고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걸 느끼며 살아 있는 것 같았다.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 학교생활을 했다. 성적은 물론 좋았다. all A로 등록금 면제로 다니게 되었다.

학교에는 장학제도가 많았다. 책을 좋아하는 특기를 살려 서평이 뭔지도 모르고 책읽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도전을 했다. 서평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고 양심껏 읽고 썼다. 내 만족이었다. 첫 번째 추천도서 책 첫 장이 넘어가지 않아 몸살을 앓기도 하고 꿈까지 꿔다. 책동아리라 지도 교수님 과목 성적을 잘 받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다. 어이없고 속상 했지만 속된 왜곡에 흔들리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생활과 자활에서의 생활의 Gap이 점점 커져 갔고 그 와중에 자활 공방에서 나눠 준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어 수술을 하게 되었다. 연결선으로 일어나는 에피소드에 지칠 대로 지쳐 자활을 포기 하고 싶었다.

어떤 이끌림이었을까? 위기가 또 한번 기회가 찾아 왔다. 손가락 수술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진통제로 몽롱한 정신으로 치료비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딸아이 교복 지원 문의로 몇 번 방문한 터라 담당자가 알아보았다. 보이지 않던 남자 주무관이 나를 맞았다. 극도로 예민했던 터라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안에서 상담하길 바라였고 상담 후 담당자로 연결 됐다.

남자 주무관님이 “컴퓨터 좀 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학교를 다니고 서평을 쓰다 보니 미루고 미뤘던 컴퓨터 배우기를 시작했던 참이다. ‘컴퓨터를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의문을 갖고 사례관리 상담을 했다. 다음날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컴퓨터?, 컴퓨터...?’ 담당께 전화해 민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고 싶다 말했다. 똑같은 조건으로 일사천리 이관 처리가 되었다. 모든 게 감사했다. 팀장님과 자활 담당, 나에게 기회를 준 주무관님 모두가 내게 은인이었다. 담당 주무관님이 월성종합복지관으로 연계해 주신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약물 치료 도움도 받고 행정복지센터 복지 도우미로 서서히 적응해 나갔다.

지금은 본래 나의 모습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손아귀에 쥐고 가지기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게 되었다. 처음 굳어 극도로 예민했던 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기까지 하다. 억지사지라 했던가? 겪었기 때문에 힘들어 찾아오시는 민원인께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절박하면...’라고 더 이해하게 되고 민원 응대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나같이 억울하고 예기치 못한 일을 겪는 분들이 있구나, 더 절박하고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 위안도 받게 되고 치유도 되었다. 그 분들을 도움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베풀고 비우니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다.

2021년 연말에는 연이어 겹경사가 생겼다.

학교에서 도전한 서평은 우수상을 수상 했고, 봉사 점수로 시작한 대구광역시·대한적십자에서 주최한 심폐소생술 UCC 제작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집중 할 수 있도록 안정을 찾은 결과였다. 매 순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

올 여름 내내 주중 퇴근 후 컴퓨터 학원을 다녀 ITQ 자격증 취득을 하고 주말 동안은 학교 실습으로 보냈다. 마지막 학기 계속 거절했던 총무도 맡게 되었다. 묵묵히 학교 생활한 것이 인정을 받아서 감사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남은 자활 1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장애활동지원사를 취득할 계획이다. 내가 도움을 받았듯 그 동안의 경험으로 사례관리사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내일 키움 통장에 적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니 뿌듯하다. 자활이 끝날 때 내일 키움 통장으로 모은 목돈으로 딸아이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마음이 한결 편하다.

요즘 주위 분들은 말한다. “진희씨 요즘 정말 밝아 졌어요.”라고.

매일 자기 전 감사 일지를 쓴다. 하루가 주어지고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다.

나는 당당한 자활맨, 희망으로 다시 서다

「최영수」서울

1995년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입원 3개월 후 돌아가시고 그 당시 딸은 중1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현실에서 식당일, 건물청소, 신문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은 상고에 다니며 고2 때부터 취업에 들어가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었지만 매달 월세 내면서 좀처럼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겨우 먹고 살아가는 정도 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을 보고 임대아파트 공고가 나왔길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니 3개월 후 용산구에서 노원구 임대아파트로 이사오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 공부도 곧 잘해서 학원도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 전 과목 90점, 100점을 받아와 제가 오히려 아들 덕분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로 이사 와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며 낮에는 김밥집에서 일하며 너무나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손목, 발목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쉬는 도중에 구청에서 자활근로 일을 해보라는 연락이 와서 2018년 12월에 자활근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자활근로라 많은 분들을 만나서 친분도 쌓아가며 대화하니 그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어려움도 이겨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카드배송사업단에서 자활근로 참여하면서 도전하였습니다.

사업단 참여 3개월 후 내일키움 통장 설명을 듣고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1,400만원 목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고 꾸준히 저축하면서 매달 통장에 쌓여가는 금액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축하니 웬지 마음이 뿌듯해서 일하는 동안 내내 힘들지 않았고 곳곳이 버터낼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노원구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해주시는 덕분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덕분에 3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며 저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힘을 얻었기에 제가 받은 이 모든 것을 이웃에 나누어가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것과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을 전해 행복을 전해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스스로를 이겨내야 한다고 마음을 정하고 계속 일하니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지만 2년, 3년째 다니면서 하루 보통 3~4시간씩 걷다 보니 몸이 건강해지면서 정상으로 되어 지금은 몸이 가벼워 졌습니다.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지방간이 있었고 몸무게도 68키로까지 나갔는데 지난번 자활근로 하면서 건강검진 받고 을지병원에서 약을 새로 처방받아 하루 1알로 매일 먹었는데 몸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씀이 “지방간도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 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한 요점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회적 직업인으로서 관공서, 병원, 경찰서, 학교, 아파트, 빌라, 식당 등 안 가는데 없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카드를 전해드리면서 사회성을 길렀고 3년 동안 보고 배우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직업은 달라도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와 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딸이 결혼해서 지금 손녀가 7살, 손자는 5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얻은 결과에 너무나 감사한 요점입니다. 이렇게 예쁜 손자, 손녀를

보게 되어 ‘아~ 나도 이런 행복한 날이 생기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아들도 대학원을 나와 지금은 석사과정에 공부하면서 자신의 길을 잘 이겨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바램은 아들이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또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인생은 60부터 새로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환갑이었는데 새로운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 건강하게 살자, 둘째, 화목한 가정 만들기, 셋째, 직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자라고 정하고 70세에 타려고 적금도 들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나 넣고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희망인 목표가 있었고 희망을 향해 열심히 살다보니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한 내일키움통장은 3년 만기라 그동안 저축한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큰 액수의 목돈도 받아 지난 9월에 새로 이사하는 행복도 얻었습니다. 또 올해 6월부터 새로 취업을 하여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때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요즘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19로 또 재난 재해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란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않겠다는 강한 마음으로 이웃과 사람들을 향해 사회속에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향해 그동안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받고 단련받은 힘을 발휘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역경과 싸우고 있을 때이다. 당시는 괴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가난해도 정신없이 분투하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니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끝으로 노원남부자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센터장님, 과장님, 팀장님, 특히 정수현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밝고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에 항상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많은 사람들과 좋은 시민으로 이웃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아 가겠습니다.

미끄럼틀 같은 세상에 계단이 되어준 자활

「최용석」광주

평범한 가정에 1남1녀의 막내로 태어난 저는 온순하고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가면서도 성격이 바뀌지 않았고 내 주도적인 일상을 살아가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없으니 의사소통이 잘되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2000년도에 첫 직장인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맡은 일은 생산직이다 보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은 아니어서 스트레스가 덜 할꺼라 생각했지만 체력 소모가 많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했음으로 천식과 비염으로 점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몸이 힘든 것도 큰 문제 였지만, 부모님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은 답답한 마음에 매일 다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매일 다그치고 지적하면 제 문제가 해결 될꺼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때부터 저에 삶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출판사를 3년만에 퇴사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데로 다른 직장을 찾아보기로 했지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는 저에게 취업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광주를 떠나 제주도로 일자리를 정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1년 4개월의 생활은 저를 점점 더 고립시켰고, 하루종일 술과 TV만 보면서 폐인처럼 지내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 생계유지가 힘들어졌고, 답답한 마음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달 정도 지난 뒤에 기초수급자 선정 공문이 집으로 왔고 생계비가 입금되었습니다. 당장에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던 저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편지 한통이 왔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니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 편지였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프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직은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근로능력이 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없기에 일단 시키는 데로 자활사업이라는 것을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집이 가까운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를 선택하게 되었고, 자활사업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매일 매일 다른 교육을 받게 되었고, ‘원예치료’ 등 심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참여하였고, 내가 모르던 정보도 많이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게이트 교육을 통해서 자활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나도 자활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례관리팀장님과 상담을 통하여 인큐베이팅 사업인 ‘해오름’사업단에서 근로와 교육을 병행하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새로 만나 적응하는 것이 두려웠던 저에게 게이트교육을 같이 받은 동료들과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기는 하였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 분들과 이야기도 하며 노래도 같이 들으며 일을 시작하니 점점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닌 밖으로 나가는 사업단은 있을까?’ 하고 사례관리 팀장님 하고 상담을 하여 ‘보금자리 홈케어’사업단 이라는 곳을 추천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 집집마다 방문해서 안부를 여쭙고 도와드릴 것은 없나 확인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저에는 처음에는 기계처럼 어른들에게 인사만 하고 오는 정도였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안면이 생기자 저에게 어르신들이 먼저 다가와서 먼저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하며 음료수를 챙겨주시며 안부를 묻는 분도 생기고, 저희가 올 시간을 기다렸다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조금씩 변하는 저의 일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힘들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회복지를 공부하여 내가 받았던 모든 혜택을 어려운 분들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위 지인분이 동강대학교 보육복지과라는 곳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었고, 야간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20학번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해보니 제 또래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모두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한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셨고, 저는 야간반에 반장을 맡아 교수님의 전달사항을 학우들에게 전달을 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보금자리 홈케어 사업단에 참여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밤에는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바쁘고 보람있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 직접 가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화상채팅 및 온라인수업을 꾸준히 받으며 사회복지사라는 꿈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노력했기에 저는 결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상담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내일키움통장 수익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여 내일키움통장을 가입하여 조금씩 목돈을 만드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다운두레 사업단에 반장역할을 담당하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빠른 미래에는 자활사업이 아닌 새로운 곳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일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저에게 세상은 미끄럼틀 같았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썩~하고 내려가 버리는,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자활은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계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주저앉고 싶을때도 많았지만, 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때로는 상담이, 팀장님의 위로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업단 가족들의 인사가 저에게는 계단을 올라갈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곳에서 저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끝에서 찾아온 희망의 문으로...

「금태현」 부산

2002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2004년에 사랑하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단란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단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지인의 보증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고 그 보증 선 것이 잘못되면서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이란 아픔을 겪으며 가정이 해체되었다.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무엇이랄도 해야 했기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택시 운전을 하는 10년이란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움이 더해가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가게 되었고, 빚은 늘어나 1억이 넘게 되고 갚을 방법이 없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러다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2016년 9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2017년 4월에 파산 면책을 받게 되었으며 빚이라는 무거운 짐은 한결 가벼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8년 8월에 강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게이트웨이 과정을 통하여 상담을 하고, 다양한

사업단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참여할 사업을 결정해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허리가 좋지 않아 힘든 일을 하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비교적 노동강도가 낮은 공동부업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쇼핑백을 제작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매일 일을 하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때로는 힘들게 살아온 참여자들과의 갈등도 있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나 또한 힘든 삶을 겪어 왔기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리며 일을 해나갔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을 센터에서 좋게 봐주셔서 반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실무자와 참여자들 사이에서 일을 조율하고 힘들어하는 참여자들을 이끌어 가면서 열심히 생활하였다. 때로는 힘에 부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난날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게 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9년 말 2020년 사업과 관련하여 실장님과 상담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면 충분히 일할 능력이 되고 반장으로서 역할도 잘 해 왔으니 내년에는 단호박가공사업단에 참여해 보는 것에 대해 제안을 받았다.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향후 자활기업 창업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 주셨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고 그냥 평범하게 여기서 주어진 일만 하면서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지 다시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였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하여 자활기업 창업이라는 새로운 꿈을 듣게 되면서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했던 내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그러다가 결론은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2020년 단호박가공사업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단호박가공사업단은 지역 내에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단호박을 배달받아 박피하고 절단하고 속을 파고 소분하여 포장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이었는데 처음 하는 작업이라 초반에는 솔직히 몸도 많이 힘들어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순간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하였다. 20명이 넘는 참여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 갈등도 많아 매일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몸도 익숙해지고 같이 일하는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게 되다 보니 한결 수월하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업도 조금씩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자활의 사업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21년 기업 측에서 그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온 모습을 보면서 2022년에는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인수 받아서 할 의향을 물어오게 되었다. 센터에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20여 명의 참여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자활기업 창업을 통하여 인수하는 것이 수익적으로 맞고 인원도 절반으로 해야 향후 운영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누가 자활기업 창업에 참여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센터에서도 개별 상담을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같이 일하는 참여자들끼리도 서로 같이 갈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고민이 많았다. 처음에 참여할 때 자활기업 창업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은 하였으나 막상 창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에서는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센터에서는 자활기업 창업의 절차와 이후 지원절차 등 다양한 지원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자활기업 창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최종 6명이 자활기업 창업멤버로 결정이 되었다.

창업멤버가 결정이 되면서 자활기업 창업과정 교육도 수료하고 여러 차례 센터와 회의를 통해서 자활기업 창업절차와 향후 지원책 그리고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으로 인해 법인이나 협동조합 형태보다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시작을 하고 향후 안정화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대표를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참여하고 있는 분 중에 신용문제 등으로 대표를 할 수 없는 분도 있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대표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솔직히 그 부담감을 잘 알기에 뭐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같이 참여하는 분들과 회의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 대표를 맡으라고 하였다. 솔직히 할 마음도 없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절을 하였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에서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하니 자세하게 상담을 해 주셔서 불안함이 해소되었고 잘 할 수 있다는 격려를 통해서 대표를 맡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대표를 맡기로 하고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준비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가 않았다. 2022년 2월까지 이제 자활기업 창업인원만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3월 1일자로 자활기업을 창업하기로 일정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런데 솔직히 인원이 줄어드니 생산량도 생각만큼 안나오고 각자 작업방식을 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적은 인원인데 그 사이에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창업을 하려고 하나 과연 이대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함이 매일 매일 엄습해왔다. 그럴 때마다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어져서 4월 1일자로 단호박프레쉬라는 자활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창업하고 나서 초반에는 생산량이 안 나오고 참여자들 통제도 힘들었지만 나 자신이 대표라는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솔선수범하여 일을 하다 보니 조금씩 대표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의견을 제시하면 받아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수급자와 일반인을 채용하여 9명으로 인원이 늘고 생산량도 늘고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앞으로도 3명 정도 더

수급자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강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은 자활기업을 창업했지만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자활기업은 처음이고 인원도 최고로 많이 참여한 자활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강서구지역자활센터를 알게 되었고 이곳을 통하여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게 되었고,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활기업 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단호박프레쉬라는 자활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서 많은 수급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길 꿈꾸며 소망해 본다.

힘들 때마다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강서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 이하 모든 실무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함께 자활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든 동료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자활은 나의 삶의 끝에서 희망의 문을 열어준 소중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나의 자활취업 성공기

「이효순」서울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며칠 전, 구립도서관의 기간제 취업을 위한 면접이 있었다. 나는 별다른 준비와 기대감이 없이 지원한터라 합격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자활, 취업지원 사업단의 인턴을 하다가 급하게 지원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구직 활동의 기간이 짧았다. 합격이라니! 얼마나 기쁘지! 우리 사회의 50대 여성에게도 기회는 있구나! 비록 정직원 채용이 아닌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채용되었다는 기쁨이 앞섰다.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면접관 두 분은 질문을 많이 하셨다. 도서관은 고상한 덕망을 가진 분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며 다양한 성향의 이용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누차 하셨다. 때로 다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응대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다. 나는 이미 자활 사업단의 취업 지원 인턴 활동을 통하여 3년 동안 카페 손님들을 응대했던 경험이 있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경험이 떠올라 순발력 있게 “잘 응대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면접관의 질문 중 인상 깊었던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도서관의 업무가 겉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은데 건강 문제는 없느냐는 것이었다. 또한 비교적 젊은 3-40대의 정직원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도

물으셨다. 이것 역시 자활사업단에서의 경험을 살려 잘할 수 있다고 떨지 않고 대답했다. 자활사업단에서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단에 모여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부대끼다 보면 인간관계가 아주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으니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돌아보면 자활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 마음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었다. 담당 직원분들은 너무나 잘 대해주셨으나 같은 참여자들 때문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나의 형편과 여건상 견디어야 했기 때문에 수년을 인내하며 많은 참여자와 동고동락하며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때로 자활의 참여자들 가운데 생활 습관이 건전하지 않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대면하면 가끔 “과연 내가 이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활에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고 스스로 구직을 하고 면접을 보는 순간이 왔다. 결국 자립적으로 취업을 하고 보니 자활사업단의 참여가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자신의 성장에 밑거름을 마련하는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공사와 같은 순간이었다.

자활사업단 참여 근로가 없었다면 구직과 지금의 취업도 없었고 이렇게 취업 성공 수기를 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전 경험과 경력이 최종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의 순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면접 때 자활사업단의 경험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어필했는지 생각할수록 자랑스롭다. 5인 가족, 세 아이의 엄마로서 취약계층이 되어 사회복지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자활에서 3년을 목표로 내일키움통장을 만들면서 때가 되면 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자립할 것이라는 의지를 불태웠던 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새롭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걸까! 도서관이라는 생소한 근무처에서 일해 보니 과거 자활 참여자로서 일했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보람되고 뿌듯해서 모든 자활 참여자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나의 취업성공수기라는 이 부족한 글이 모든 이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다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최소한 꽃 한 송이는 피어나기 마련이다. 자신이 처한 취약한 상황도 좋은 경험이자 밑거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를 대비하여 착실히 경력을 쌓아가야 한다. 언젠가 그 거름을 바탕으로 훌륭하고 탄탄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자랄 것을 믿고 말이다. 자활과 사회복지만을 과하게 의존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버팀목과 디딤돌이 되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며 축복의 기회를 향해 나아간다면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 나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나의 확신을 가까이 계신 분들, 자활 참여자 모두와 나누고 싶다.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맡은 업무는 안내데스크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을 안내하고 카드를 발급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총괄 업무를 하는 자리이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민원 응대가 주를 이룬다. 사람들은 얼굴이 각기 다르게 생긴 것과 같이 성향이 다 달라 피곤을 느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해가 가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용자부터 작은 일로 언성을 높이며 따지는 이용자까지 정말 다양한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한다.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떤 이유에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그들이 만족할만한 대응을 하려고 한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자활 활동에서 했던 나는 두 장소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어디나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온다.

나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이곳에서의 경력을 발판이자 경력으로 삼아 앞으로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직원으로서 사서로 취직하고 싶다. 나는 언제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정년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나에게 일은 언제나 새로운 에너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억지로가 아닌 즐겁게 긍정적으로 일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파이팅! 이효순!

누가 인생을 60부터라고 했던가? 나의 인생은 자활에서부터다

「 장은주 」 강원

“언니 직장이 여기 근처지?”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활동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어느 날 그날도 겸사겸사 집을 나온 김에 커피를 사 들고 친한 언니가 다닌다는 회사에 방문하면서 나는 이곳이 삼척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은 자활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사별을 한 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장되어 아들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당과 아이스크림 판매장에서 정신없이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새로 시작한 일도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닥쳐온 친정엄마의 희귀암으로 주 3회 병원 동행을 해야 하는 일이 가중되어 지치고 힘든 날의 연속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퇴골 수술로 몸이 불편하신 친정아버지의 식사 수발과 집 안 청소까지 도맡아서 하느라 피곤이 누적되어도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였고 식당 서빙의 특성상 손목과 다리에는 통증을 달고 살았으며 체중이 줄어 해골이 되어가고 있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어느 날 멍이 든 두 팔과 해골이 되어 있는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내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보니 이러한 감정들은 나에겐 용납되지 않는 사치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위기의 수렁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을 직업으로 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반영구 화장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일과 육아 부모님 병원 동행... 여기에다 반영구 화장법까지 배우려니 좀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니 의욕이 앞서고 삶의 활력소가 되어 마음의 안정을 차츰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반영구 화장법으로는 생계를 꾸리기엔 무리가 있었고 취미로만 해야 했으며 생계에 도움이 되는 취업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인 공고란을 보고 삼척샘터주단기활동센터 재활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계획, 진행, 시설 장애인의 식사 수발 및 목욕등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기에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혼나면서도 배움이 많았던 시기인 것 같다. 스스로 나를 뿌듯하게 여겼던 순간이었다.

사실 장애인센터에 꼭 취업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지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 왔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담임선생님께서 제발 병원가서 약을 먹이라며 화를 내신 적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혼내고 타이르고를 반복하다가 약물보다는 심리치료를 먼저 선택했다. 가진 것 없는 살림에 어렵게 선택한 것이라 4회~5회기 횟수가 지나갈수록 조금해졌고 나아지지 않아 결국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등록장애인 아이들을 보니 우리 아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껴 다행이었지만 같은 부모 입장에서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는 하느님께 내 아이는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기도는 드렸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과잉 행동을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는 이런 내가 미워 잠든 아들 옆에서 울곤 했다. 등록장애인을 대하면 대할수록 많은 손길이 닿아도 재환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갈 때 회의감이 몰려왔으며 나의 몸도 지칠 대로 지쳐

갔다. 이때 나의 결정은 사회복지사는 나의 적성과 맞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꿈을 확실히 접고는 2년여 동안의 장애인센터에서의 일을 마무리고 퇴사하였다.

퇴사 후 몇 달은 퇴직금을 쪼개서 생활했으며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다. 우연히 시내 볼일을 보고 지나가던 중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언니의 회사가 이 근처라는 걸 알고 방문하게 되면서 자활센터를 알았고 몇 번을 더 방문했다. 센터의 계단을 오르다 마주친 게이트웨이 팀장님과 인연이 되어 상담이 진행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게이트웨이 신규참여자 기초교육으로 자활사업과 자활사업단의 근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직장인으로서의 예절, MBTI로 보는 나의 성격유형은 ESFJ임을 알았으며 자아존중감 척도지 검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보면서 나를 정리하고 자활사업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게이트웨이 기초교육이 끝나고 사업단 배정에 대한 고민에 쌓였다. 처음 자활에 들어올 때는 아이들의 케어에 신경을 쓰기보다 급여가 가장 많은 사업단에 가려고 했다. 공적부조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사별했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남겨진 재산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보험금은 한 푼 못 받았다. 지금도 사람들이 사별의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다. 많은 고민에 쌓여 있는 나에게 게이트웨이 팀장님은 지금은 많은 급여보다는 성장기 자녀의 돌봄이 중요하니 자활도우미로 근로하기를 권유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는 자활도우미로 본격적으로 근로를 하기 시작했다. 근무 장소는 센터 사무실 안이었고 팀장님들의 간단한 업무를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 자활도우미께 물어가며 배우고 업무가 없을 때는 컴퓨터 관련 책을 펼쳐 공부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오랜만에 하는 공부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참 어색한 것이었다. 센터의 참여자 자격증 취득지원으로 전산학원을 등록해주었다. 자격증 취득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타이핑 속도는 제법 빨라졌으며 해보지도 않았던 엑셀 작업과 문서 작업, 직장에서의 예절과 전화 에티켓까지 배운 것이 너무 많고 뭔가 전문직다운 일을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들썩해지기까지 한다. 또한 사무실을 함께 하는 팀장님들에게는 친절함을 배울 수 있고 앞에 앉아있는 두 분의 팀장님과 복무요원은 하루에도 몇 차례 재미없는 나의 아재개그를 재미있게 들어줘서 출근하는 즐거움을 주신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차츰 늘어 능숙해져 가고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자활에서 얻은 또 하나의 선물은 시간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언니들과 점심을 같이 먹고 쉬는 시간 웃고 떠들며 더욱 친해져 최고의 동료이자 친구가 된 것이다. 나와 비슷한 한부모가족이 많아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비슷한 경험들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서로 멘토·멘티가 되어 주어 큰 힘이 된다.

또 자활에서는 매년 한 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있어 자격증 취득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던 내가 운전면허 1종을 취득했으며 전산학원 2개월 수강하였다.

그 외에 직업능력, 근로 동기, 신용상담, 건강상담, 가족 상담까지 가능한 사례 관리사가 있다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중 직업능력 상담을 받던 중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의 트라우마로 나의 꿈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던 사회복지사의 길을 다시 한번 진로로 꿈을 꾸게 해준 이곳 삼척지역자활센터는 나의 잃어버린 날개를 찾아준 곳이다. 자활근로 참여자 4명과 함께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동시에 접수하면서 장학생으로서 3학기를 마쳤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예전에는 없었던 아이들과 함께 책상에 앉아 서로 각자의 공부를 하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곤 한다. 요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한 뒤 밤 10시가 되어야 집으로 들어간다. 이런 나의 모습을 아이들이 격려해 준다.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는 일이 많지만, 아이들에겐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 꿈이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자랑처럼 여기는 것 같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활급여에서 월세도 내고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하나보다는 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어느덧 ADHD 증상을 보이던 아들도 중학생이 되어 스스로
공부할 줄 알고 오빠로서 책임감으로 동생을 잘 챙겨주어 이제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자다. 물론 아직까지 약을 먹고 있지만 말이다. 나는 이런 기억을 간직하며
자활 종료 후에는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자기반성, 관용적 태도로 ct를 대하는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다.

다른 변화는 저축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팀장님께서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39살의 마지막 기차를
타게 되어 최초의 적금으로 풍성한 나의 미래를 쌓아가고 있다.

올해는 우리 딸의 항복가정학습지원으로 운동화도 지원받게 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돌봐주는 따듯함을 느꼈다. 어제와 다른 변화하는 나를 보면서 자활센터가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임이 틀림없다.

자활에 참여한지 2년여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난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은 것과 진실된 동료들을 만난 것, 아이들이 아무 탈이 없이 성장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난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전문가다. 아마 자활센터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여전히 언제나 그러했듯이 시간제
아르바이트하면서 미래의 발전도 없이 매일을 고되고 지친 몸으로 불투명하게 한해
한해를 보내고 있었을 것 같다.

자활이란 곳은 꿈이 없던 나에게 배움의 장소이며 꿈을 만들어준 희망의
샘터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나와 같은 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인생은 60부터라 말했던가 나의 인생은
자활에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당당한 수급자, 탈수급하다

「 이정민 」 제주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수급자였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했고, 할아버지와 살며 수급자 혜택을 받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수급자라는 게 남들과 다른 것 같았고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우유값과 급식비를 지불 하면서 받는데 저는 수급자 혜택으로 인해 무료로 우유와 급식을 받아서 창피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급자혜택 지원으로 ITQ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취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수급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고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러는 중 고등학생 2학년이었을 때 제 곁을 항상 지켜주시고 슈퍼맨 같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은 본인은 몸이 아파 힘이 들어도 병원에서 집에 갈 때 택시비 하라고 만원을 손에 쥐어주시던 모습입니다. 그게 마지막 할아버지의 모습이어서 지금까지도 할아버지를 때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고등학교 를 자퇴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동사무소에 전화 해서 할아버지와 살았을 때 수급자 혜택을 받았었는데 혹시 계속 이어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선 고맙게도 계속 이어 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갈까 고민했지만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대학교 졸업을 했다는 타이틀이 나은 것 같아서 수급자 전형 지원을 통해 제주에 있는 모대학교 인테리어 건축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건축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들어간 터라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생활도 어려웠지만, 지인들에게도 수급자인 걸 티내지 않았습니다. 여자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한 지인들에게 수급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말에 속이 뻥 뚫리기도 하고 해방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급자라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울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한 달에 한번은 우울증이 아주 심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한라병원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꾸준하게 정신과를 다니면서 우울증세는 많이 호전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3년 넘게 예쁜 사랑을 하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격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부모님 문제로 인해 헤어졌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려는 생각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향을 하게 되었고, 우울증도 심하게 왔습니다. 음주만 계속 하게 되고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수급자인데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동사무소에선 제주수눌음자활센터라는 곳이 있고 청년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단이 있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희망을 느꼈고 저에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놓음지역자활센터에 전화를 하였고 상담 후에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및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마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청년 사업단인 청자날다 사업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주 수놓음 휴게소 근무와 공부방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자날다 사업단은 제가 지금까지 알바를 했던 곳보다 편하기도 했었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많이 부족했었고 배울게 많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업단을 내가 잘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직업상담도 잘해주셨습니다. 덕분에 ITQ 엑셀을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휴게소 근무와 공부방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서로의 힘들도 이야기하고 고민을 말하며 마음에 있는 덩어리를 털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참여자들이 그저 밝게만 보였는데 각자 아픈 사정도 있었고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걸 확인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인상 깊고 도움이 많이 된 교육은 ‘마음에 들어 심리연구소’에서 한 감정오일이라는 프로그램과 청년한끼밥상 프로그램입니다. 감정오일 프로그램은 오일테라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교육으로 새로운 향도 경험할 수 있었고 내가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감정과 상황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청년한끼밥상 프로그램은 청년참여자와들 함께 요리 하는 시간 이여서 힐링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식재료를 손질하는 방법도 배우고 조리법도 가르쳐 주셔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리가 즐겁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특히 혼자 사는 저 같은 1인 가구에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열심히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저는 이러한 수급 생활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취업을 계속 고민하며 팀장님과 상담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수눌음지역자활센터의 일자리지원센터 팀장님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정보도 얻었습니다. 청자날다 담당팀장님과도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팀장님은 취업 시켜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정보를 알아내서 전달 해주셨고 덕분에 면접도 여러 번 보고 면접 경험도 쌓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취업 정보와 면접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니고 싶은 회사를 찾아 면접을 보게 되었고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라고 쉽게 포기하며 도전하지 않으려는 청년 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노력해 보라고 말입니다. 수급자라고 회사에서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시수눌음자활센터 청자날다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청년 분들께 취업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홀로서기가 무서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팀장님과 센터의 지원이 항상 곁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준 제주시수눌음자활센터 감사합니다.

이슬 맞고 자는 사람에게 새로운 등지가 되어준 자활

「장창원」경기

이슬 맞고 자는 사람. 노숙인.

노숙인(露宿人)의 한자어는 길에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슬을 맞고 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곳저곳 떠돌며 살던 이슬을 맞고 잤던 나에게 새로운 등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곳이 생겼습니다.

자활. 그리고 자활기업(주)클린시티.

중학교 졸업 후 집이 싫어져, 집을 나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전주에서 가구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던 나는 지인의 소개로 내 나이 25세에 제주도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살림을 제주도에서 시작했고, 결혼 후 1년 정도 지나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전주에서 사업을 하던 경험을 토대로 제주도에서도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새로운 환경 탓에 사업 구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일상에 젖어있던 나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태어난 지 백일도 안 된 딸이 아내의 발작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다는 것을 견뎌내기 힘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간질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그나마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데 수유하던 아내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에 생긴 예쁜 딸이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분한 마음. 깨어진 믿음.

아무 반항도 할 수 없이 고통을 겪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딸이 겪어낸 시간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아프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그때부터 술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1년 반 정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제주도에서 더 이상 아내를 보며 살 수가 없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지냈던 전주로 다시 올라와 예전에 했던 인테리어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지인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실패에 아이까지 잃고, 사기까지 당한 나는 삶의 의욕도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전주에서의 생활을 접고 목포로 가서 새우잡이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육지로 돌아오는 때는 봄철에 한 번,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는 새우잡이 배를 3년 정도 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배를 타면서 여전히 술을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마셨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기계 부품을 찍어내는 프레스 공장도 다녀보고, 식당에서 주방일과 써빙일을 해봤습니다. 또한, 강원도, 전라도로 노가다 일을 떠돌이 생활처럼 안착하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고,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노숙인 보호시설(성경원)에도 들락날락하면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노숙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시설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고, 행정복지센터에 갔더니 ‘자활센터’라는 곳을 소개해주었고, 그렇게 2019년 8월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 잡고 잘 일해보려고 했는데, 또 발목을 잡은 것은 ‘술’이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 술을 입에 대면, 의지와 상관없이 술독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한달만인 9월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활에서의 첫 참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다시 찾아간 곳은 자활센터였습니다. 게이트웨이과정에서 자활기업과 사업단을 경험하게 되었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깔끄미사업단에 참여하며 자활기업(주)클린시티에 파견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클린시티에서 게이트웨이 과정과 깔끄미 사업단에서 참여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무서워 거절한 코로나19 소독 방역 업무를 자활기업 클린시티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노숙인으로 생활하던 나에게 클린시티에서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숙소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운전면허도 취득하게 되었고, 힘들지만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열심히 자활에 참여했고,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상담도 받아보고, 알콜중독 환자들이 먹는 약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약에 의존하다 보니 잠도 오는 것 같고, 마음에 이젠 술을 안마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먹던 약도 끊어버렸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 되지 않아 또 술을 입에 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노숙인과 알코올 중독의 티를 하나씩 벗어나고 있을 때, 또 다시 술을 입에 대며 꿈꾸던 평범한 일상에서 한 발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활센터와 클린시티의 임은애대표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북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테에 연계해 주어 알콜중독 환자들이 입원하는 전문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0일은 술독에 빠져 살았고, 백일이 조금 지나 죽은 딸아이가 생각날 때는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자활기업 클린시티의 임은애 대표님은 술에 빠져 허덕이는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삼시세끼를 챙겨가며 병원에도 데려가 주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으로 기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대접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숙인이라고, 알콜중독이라고, 무관심 속에 사회에서 버려져 있던 나에게 술을 마시게 된 아픈 상처를 들어주고 그래도 다시 인생을 시작해보도록 격려와 함께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퇴원 후 제가 찾을 수 있는 곳은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클린시티 뿐이었습니다. 염치는 없지만 다시 클린시티에서 일하고 싶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찾아갔고,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의뢰를 통해 인턴사업단 소속으로 클린시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동선 방역, 자가격리자에게 제공되는 키트 배송과 상비약 배송..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선 '자활에 참여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고 이야기 했고, 그 이야기에 몇 번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다시 술독에 빠져 더 이상의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클린시티 대표님과 직원들은 내 가족의 일처럼 단호하게 혼내기도 하고, 다독여 주기도 했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노숙인 생활을 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자활기업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저를 광주시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주셔서 올해 10월 LH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어 투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세임대 보증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자레인지와 압력밥솥, 식탁 등도 선물로 해주어 번듯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술생각이 나지만, 술생각이 나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가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엔 술을 안마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이제 클린시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에게 새로운 동지가 되어준 자활과 자활기업 클린시티를 지키고 싶다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가정이 싫어 나와 생활하고, 2년도 안 되는 결혼생활에서 예쁜 딸의 죽음으로 힘들었고, 지인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 신용도 없고,,,

술독에 파묻혀 20년을 넘게 살던 나를 친구로 삼아주고, 사람으로 대해 주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클린시티 임은애 대표님과 직원들, 그리고 광주지역자활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북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와 광주시청 공무원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지금 (주)클린시티에 인턴사업단으로 일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취업해서 정규직 근로자가 되어 자활이라는 단어에 맞게 당당히 자활하여 설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 집을 나와 살고 있지만. 부모님도 찾아뵙고 아들 노릇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나의 딸에게도 술독에 빠져 망가진 삶을 사는 모습보다는 슬픔을 잊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친구 삼아 준 (주)클린시티가 건물도 사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자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나의 보금자리 자활에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나같이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모여 이제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기업의 한 일원으로, 나의 동지를 지키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닌 나 !! (희망의 문)

「 이종식 」 서울

저는 53살 남자 - 가족관계는 외아들이며, 부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에 계시고 지금은 이 세상엔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아들 하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021년 4월 15일에 조건부 수급자가 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강북지역자활센터의 팀장님 권유로 제 강북지역자활센터 체험후기를 부탁받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얘기를 하기가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게 된 동기는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나마 조금의 도움이 될까 해서 체험수기를 쓰려 합니다.

저는 강북지역자활센터 (오늘도 깨끗사업단)에서 근무하기 전엔 k대학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아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강사로 재직 하던 중 결혼도 하게 되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제가 꿈꾸고 희망한 대로 이끌지 못해 아들이 4살 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나보니 제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전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학교, 교우관계 절 아는 모든 이들은 먼저 절 찾아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자괴감으로 공황장애 및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카드나 은행대출로 생활하면서도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며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성공했다면 지금 이곳에 없었겠지요.

뒤를 돌아보니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고기 잡는 배(선원)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 살아야겠다는 조금은 들게 되고, 저만 바라보고 계신 아버님이 계셔서 야간에 4대보험이 적용 안 되는 유통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중 항상 건강 하실 거라 생각한 아버님이 2019년 병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전립선암에서 폐암으로 전위되어 힘든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님은 오히려 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간병인 기타 등등 혼자 감당하기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주민센터에 가서 제 상황을 말해보라기에 주민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2021년 1월 28일 수급신청을 하게 되고 4월 15일부로 조건부수급자가 되었다고 구청직원분이 연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2021년 4월27일부로 아버님은 이세상이 아닌 저 세상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주저앉을 수 밖 에 없었습니다. 아버님께 드린 마지막인사가 ‘아버님! 다음에도 꼭! 제 아버님으로 태어나게 해 주세요 저 또한 아버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모든 걸 주신분이신데, 전 못해드린 게 너무나 많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자리는 무척 크게 넓기에 힘들게 보내는 중 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가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여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교육을 중단하게 되고 얼마 교육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자활센터 실무자분께 전 얼마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교육을 다시 받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코로나 상황으로 대기인력이 많아 재교육은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단에서 참여를 하여, 적응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기가 무기력해 지는 것 같아 야간에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며 지내던 중 9월 24일과 9월 28일에 게이트웨이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란 것이 본인의 얘기를 타인에게 하는 것이라 저 또한 망설여지고 부끄럽게만 느꼈는데, 담당자는 친절하게 경제상황, 주거형태를 상담해 주신 뒤 제게 택배 또는 청소사업단에서 일할 것을 권유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몸 상태는 물류창고에서 제 몸을 몹시 혹사 했는지,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니 양쪽 무릎 슬개골에 염증이 심해 당분간은 힘든 일을 하지 말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지만, 10월 19일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다보니 서먹서먹하게 실습 받았습니다. 택배사업단에 계신 동료들이 한 분 한 분 다가와 주시면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친절하게 일도 가르쳐 주셨고, 그러다보니 저 또한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택배담당 실무자와의 상담에서 어떠시냐고 물어 보시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11월부터 희망드림택배 운전직으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드림택배 참여주민 대부분이 저보다는 연배가 많으신 분들었는데, 제가 편했는지 어떤 분은 컴퓨터 아이디어를 잊어버렸는데 찾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 다른 분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 줄 수 있는지. 어떤 분은 송장을 봐야하는데 안경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안경케이스를 드렸더니 매우 고마워하시며, 먼저 다가와 주신 동료들에게 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드렸더니, 무척이나 고마워하시면서 오히려 제게 더 많은 걸 해주실려고 하시는 동료들과 함께 하다 보니 희망 드림택배에서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만족한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저와 나이가 같은 동료들에게 사석에선 친구야! 라고 호칭하는 제겐 너무나 소중한 친구가 되어준 이들이 있어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2022년 1월부터 희망드림택배가 시장형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됨으로 매월 받는 자활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기가 어렵게 되어, 희망드림택배 반장님께 3월말까지 근무하고 종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월세 45만원, 아버지 병원비로 아는 분께 빌린 2천2백만원 중 매월 50만원 이상 갚아야 하며, 통신비 기타 생활비 등등 이러한 지출이 되다보니, 반장님과 실무 담당자, 소중한 친구가 되어준 동료들이 본인의 일보다도 더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이들이 함께 고민하자며 위로를 해 주었지만 전 종결만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희망드림택배 실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깨끗 사업단은 시장형이니 희망드림택배에서 사업단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시길래 거절을 했습니다. 저만 힘들다는 이유로 사업단을 전환하는 것이 제 기준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깨끗 사업단의 실무자와 미팅은 거절할 생각으로 미팅을 했는데, 담당실무자의 열정과 자신감과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기에 조금은 망설여지게 되었습니다. 희망드림택배 동료들도 지금 당장 종결보단 주거, 신용회복문제를 해결하고 종결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시고, 다른 이들의 시선보단 본인의 문제가 먼저이니 강력하게 추천해주신 동료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흔들리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혼란은 오늘도 깨끗 사업단 실무자의 열정과 넘치는 에너지, 자신감인데 저도 20-30대는 제 자신의 일에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에 담당 실무자를 믿고 오늘도 깨끗사업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늘도 깨끗이란 새로운 사업단으로 전환은 하였지만, 또 다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야 생각에 낮가림이 있는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어떤 동료분은 제가 희망드림택배에서 문제가 있어 여기로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 저는 그게 아니고 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깨끗 동료들은 아닌데, 저만 느낀 차가운 시선!!

그렇게 실습하던 중 오늘도 깨끗 사업단의 반장님이 같이 저녁을 하자고 하시기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는 자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희망드림택배 동료들처럼 오늘도 깨끗 동료들과도 편하고 친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깨끗이란 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도 희망드림택배 동료들과도 동선이 겹쳐 만나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해 주신분들을 만나니 기뻐서 그 분들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시는 선생님. 매일 저녁 퇴근 후 엔 걱정이 되는지 전화하는 친구가 된 동료와 기타 다른 동료들 덕분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저희 모습에서 웃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택배동료들을 만나면 오늘도 깨끗사업단 가서 얼굴이 좋아졌다고 거기가 그렇게 좋아!?- 농담을 던지십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질문처럼 희망드림택배가 좋아 오늘도 깨끗이 좋아 라고 하는 곤란한 질문으로요. 전 그때그때마다 오늘도 택배(오늘도 깨끗과 희망드림택배 합쳐서)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회생활이 이런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사실 제 얼굴의 변화는 10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과 만나게 되면서 부터인데, 아들의 꿈을 꾸게 되면 아들의 모습은 언제나 유아시절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고3이 되었습니다. 절 많이 미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금은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한 달에 3번 이상 만나며 조금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11월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전 이 세상에 저만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닌 오늘도 깨끗, 희망드림택배 동료들이 계시다는 생각에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형을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오늘도 깨끗 사업단의 실무자 선생님! 다시 시장진입을 하기 위해 노력하신 희망드림택배 실무자선생님! 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제일 처음 뵈었던 참여주민에게 한명이라도 더 기회를 제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이트웨이 담당선생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 이제 오늘도 깨끗 사업단이란 희망의 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강북지역자활센터에 계신 모든 실무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들의 지금 하시는 일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참여주민도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수고에 진심으로 박수 보냅니다. 짹! 짹! 짹!

시련을 기회로

「이복순」 충북

세상에 모든 행복이 나에게 쏟아지던 그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나에게 앞으로 꽃길만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살던 내 삶은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오지 못하고, 곧 이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우리는 생계를 위해 남편은 택시, 나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이 둘을 돌보며 어렵게 일군 사업은 번창하는 듯 보였으나, 택시를 운영하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6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남편은 이 사고로 약 2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됐고, 나는 어느새 신용불량자가 되어있었다.

투정 부릴 틈 없이 자란 아이들, 남편의 병간호,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던 시어머니, 그리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지는 가세까지.....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고 못된 마음까지 먹었지만 그런 나를 항상 지켜봐 주고 힘을 준 건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이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엄마 품에서 어리광 부리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혼자 울고 있는 나에게 휴지를 건네주고 혼자 편히 울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착한 아이들이었다. 더 이상 나만의 힘으로는 가족들을 책임질 수 없던 차에 지인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알게 되어 동사무소를 찾아가다.

절실한 시기에 얻은 수급자라는 타이틀은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괜스레 위축되고 기가 죽고, 크게 아픈 곳 없는 내가 수급자라니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 언제든 벗어던지고 싶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었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오듯 남편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아이들도 엄마 손을 타지 않을 만큼 큰 이후로는 탈수급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동업을 제안해 왔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없던 나는 손재주 하나만 믿고 동업을 수락했고 지인도 받아들여 줬었다. 하지만 그 동업은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돈이 없으면 꺾끄러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투자금을 부담한 동업자는 함께 일을 하는 동안 가진 게 없어 죄라는 생각이 옥죄 만큼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동등하게 시작하지 못한 동업은 끝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가 사업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천시지역자활센터에 발을 들였다. 지친 내 마음과 망가진 몸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갈 곳이 자활뿐이었다. 센터에서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손재주를 알아봐주셔서 반찬하는날 사업단에 배정되었고, 먼저 배정된 사람들에게서 당근 하나 써는 것부터 지적받으며 텃세를 견뎌다. 그 와중에도 반찬 사업은 무척 잘되어 새벽 근무와 주말 행사에 투입되어 하루가 어떻게 갔지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센터의 지원 덕분에 자활근로에 참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전문자격증 3개를 취득할 수 있었다. 없는 살림에 추가 비용까지 지출해가며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잠도 못 자고 시험 준비를 했지만 자격증을 받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구나하며 말로 못 할 뿌듯함과 성취감을 얻었다.

그리고 반찬하는날 사업단에 참여하며 그토록 원하던 탈수급을 하게 되었다. 탈수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았지만 세상은 수급자 시절과 똑같이 나를 빼고 평화로워 보였다. 아픈 곳이 많아지는 요즘 수급자를 유지했다면 병원비도 안 들어가고 좋았겠다 싶은 순간도 있지만 마음먹은 일을 하나하나 해쳐 나가니 어려울 것은 없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상담을 제안했다.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다. 신규 사업으로 김밥집을 계획 중인데 나의 능력을 믿고 메인 인력으로 사업단 구성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센터장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김밥으로 제천을 다잡고 싶다고 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계획을 말하자마자 자신있게 포부를 밝히다니..... 센터장님도 어이없으셨겠다 싶다.

이후 하마김밥전문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사업에 참여하고, 센터 2층 조리실에서부터 다른 참여주민들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나누게 되었다. 동업의 아픈 기억으로 동료들과 일하면서 두려운 순간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제천지역자활센터 직원분들의 지원으로 하마김밥전문점이 안정되어 감을 몸소 느끼고 있다. 동료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고 어느새 지역 내에서 입소문이 돌게 되어 앓을 틈 없이 열심히 김밥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하고 있다. 사업이 너무 잘되다보니 하루하루 김밥 마는 손목이 상하는 게 느껴지지만 잠깐하다 마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달려야함으로 건강관리 잘해야 한다는 팀장님의 말을 가슴에 새긴다.

내년 우리 하마김밥전문점은 자활기업으로 조기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 자활사업을 떠나 우리끼리 자활기업으로 운영한다는 게 진짜 될까 싶기도 하고, 창업을 나가게 되면 동업의 상처를 또 받게 되지 않을까하는 잡념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걸 알고 있기도 하고, 우리 김밥을 너무나 좋아해주는 손님들도 늘어나고 프랜차이즈 문의도 받고 창업도 앞두고

있다는 이 현실이 눈물 나게 행복하고 감사하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내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얻은 것은 낭떠러지 밑에는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동업자에게 버림받던 나는 이제 그 아픈 기억들은 가물가물해지고 미래가 기다려진다. 그 기대감 덕분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다시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며 설레는 기분으로 시련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름의 녹녹함에서, 가을의 산들바람으로

「안소희」 경기

제가 자활센터를 다시 찾아간 것은 비가 추적추적 오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 전 인연이 끝난 줄 알았던 자활센터를 다시 찾아가는 제 마음도 우울감에 한껏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2남2녀의 맏이 장녀로 농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그리 풍족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불만이 있던 저는 어른이 된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졸업 후 무작정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던 22살에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의 아빠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미혼 한부모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잘 풀릴 것 같던 제 삶은 아이를 가지고 난 뒤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는 36주 만에 조산을 하였는데, 그것마저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출산하였고 아이는 2.06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3주간이나 있다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감사하면서도 걱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출산한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건강히 잘 키우고 싶단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어린 자녀를 돌보며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근무하게 된 저는 카페 특성 상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해야 되었고, 너무 긴 시간을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했으며,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결국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주변사람들의 안내로 자활센터를 알게 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활참여 때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 지역아동센터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 한 후 사회복지사로써의 첫 근무였습니다.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지만, 아이가 다치게 되어 결국 4개월 만에 자활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부모 시설 등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역량과 자신감이 부족하여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일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고, 병원을 다니며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심리적인 부분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더 이상 일반 직장에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활참여 때는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다시 자활로 오게 되었다는 절망감과 우울감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재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느낀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 번 자활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6년 처음 자활에 왔었을 때처럼 센터 선생님들은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 해주셨습니다. 게이트웨이 담당 과장님과 전에 저를 담당하셨던 실장님이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습이 감사했고 인상 깊었습니다.

자활에 재참여 하게 된 이후 저는 사업단의 전담 관리자로서 중간 전달 및 서류 작업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업무였습니다. 전담 관리자를 하면서 문서 업무 및 실무업무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사회복지사로써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활을 오기 전 직장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였지만 항상 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업무가 부담되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떨어졌던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고 다시 사회복지사 업무에 도전해보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저는 다시 한 번 취업전선에 뛰어 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취업을 준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직정보 습득부터 시작하여 이력서 작성법 까지 교육 받을 것을 기반으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이 막막할 때 탈수급 담당자 선생님의 컨설팅을 통해 좀 더 내용이 탄탄하고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하고자 결심을 하니 사실 취업까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센터 내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신감이 붙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도전 끝에 저는 사회복지사로써 취업에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부모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응 중에 있으나 첫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은 많이 극복하고 취업을 하여 그런지 처음 근무했을 때 보다 업무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저는 35세의 나이로 아직 가능성이 많은 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많이 방황도 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차근차근 저의 부족함 점을 채워 나가며 아이와 함께 삶의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하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여 역량을 더욱 키워 과거의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시 자활센터를 찾아갔을 때의 절망감과 우울감은 사라지고 제 삶에는 다시 희망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취업이후 내일키움통장도 수령하여 일부를 아이의 학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던 저의 바램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아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저에게 새로 주어진 새 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엄마,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며 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여름비에 젖은 것처럼 녹눅눅했던 제 마음은 어느새 가을의 산들바람 속에서 보송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외에도 명절마다, 행사마다 잘 챙겨주시고 후원 물품과 복지 서비스 연계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단 담당 과장님 또한 저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잘 근무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업단 동료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따뜻함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보겠습니다.

용기가 되어준 희망키움통장

「김지혜」 제주

자활기업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가 되고 막내가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아빠... 이 후 아이들을 돌아보니 일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있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바깥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예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자활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앞을 보고 달렸습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꿈이 아닌 그 시절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부모님, 주변 사람들과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응원해 주던 세 아이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던 자활기업과 자활 실무자분들이 생각하신 자활기업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꿈꾸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수입이 꾸준히 지속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기에 자활기업 전환을 약 7개월 정도 앞두고 자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공방을 차리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을 하던 중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업자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물품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내는 공방이 아닌 오로지 외부출강만 진행하는 공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살 수 있겠냐고 걱정하시던 부모님, 취업 자리를 소개해주셨던 지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차츰 자리를 잡아갔고 이제는 더 이상 제 통장에는 생계급여라는 문구가 찍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항상 다른 문제가 기다리듯이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출강을 나갔을 때 수강생분들이 내가 만든 작품을 구경하고 싶다, 혹은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유로 저의 공방에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공방을 갖추기에는 여의치 않아 고민하던 중 자활에서 희망키움통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주민센터를 찾아가 문의를 하였고 희망키움통장 I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희망키움통장 I에 가입을 한 후 저는 또 꿈을 갖고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공간, 그 공간의 내부, 원데이클래스, 그동안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못했던 새로운 강의... 머릿속 가득 미래를 꿈꾸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좋은 분과의 인연으로 어린이집으로 시간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시간강사를 한곳이 아닌 여러 곳을 다니게 되었음) 1회 진행, 4회 진행으로 들어오던 강의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 1년 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제 생활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면 진료비를 1,000원을 주고 나오면 되었는데 이제는 3~5,000원의 진료비를 내게 되었고,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사줄 수도 있었으며,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나 그러하겠지만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못 해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혼자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차츰 자리도 잡히고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나의 가게를 가진다는 것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닌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는 기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발병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등교가 전면 중지되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되었고 그로 인해 저와 같은 강사들이 설 수 있는 곳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금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강연을 하는 강사들은 조심스럽게나마 강의를 하게 되었지만 저처럼 무언가를 함께 만들며 다가가서 설명해야 하는 강의를 요청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점차 꿈과 목표의 달성 문제가 아닌 생계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야. 요즘 일은 어때? 시간 괜찮으면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지원금 신청받는 기간제근로자 모집한다는데 해볼래?”

나의 꿈과 목표를 알고 항상 응원해 주던,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알고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던 이 한 통의 전화가 그나마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받는 기간제 근로에 지원하여 2020년 한해는 겨우 먹고사는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자궁내막증까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삶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저에게는 오로지 생계를 위한 출근으로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하루하루가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부추기는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모집에도 지원하여 합격 및 근무시간을 통보받았지만 스스로 거절하였습니다.

아직 40이라는 나이가 많다고도 적다고도 할 수 없지만 나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약한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꿈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아이디어도 지금은 없습니다. 고민 끝에 경험을 쌓고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찾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금은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주방에서 음식에 대해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식재료 관리법, 손질법, 조리법 등 이곳에서 일 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배우고 일 년 후에는 제 이름으로 된 음식점을 차라는 것이 현재 제가 가진 꿈이자 목표입니다. 희망키움통장 I 덕분에 저는 두 번째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I 을 가입할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었지만 이제 만기가 되어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어땠을지... 이미 지난 일은 후회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큰 원동력이 된 ‘희망키움통장’이란 이름이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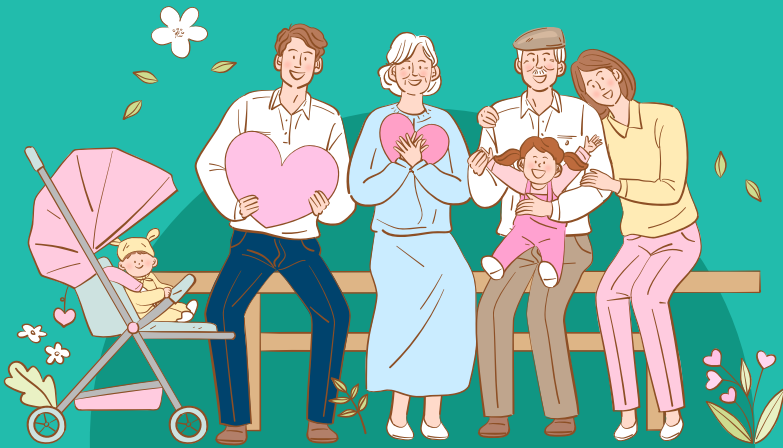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큰 도움이 된 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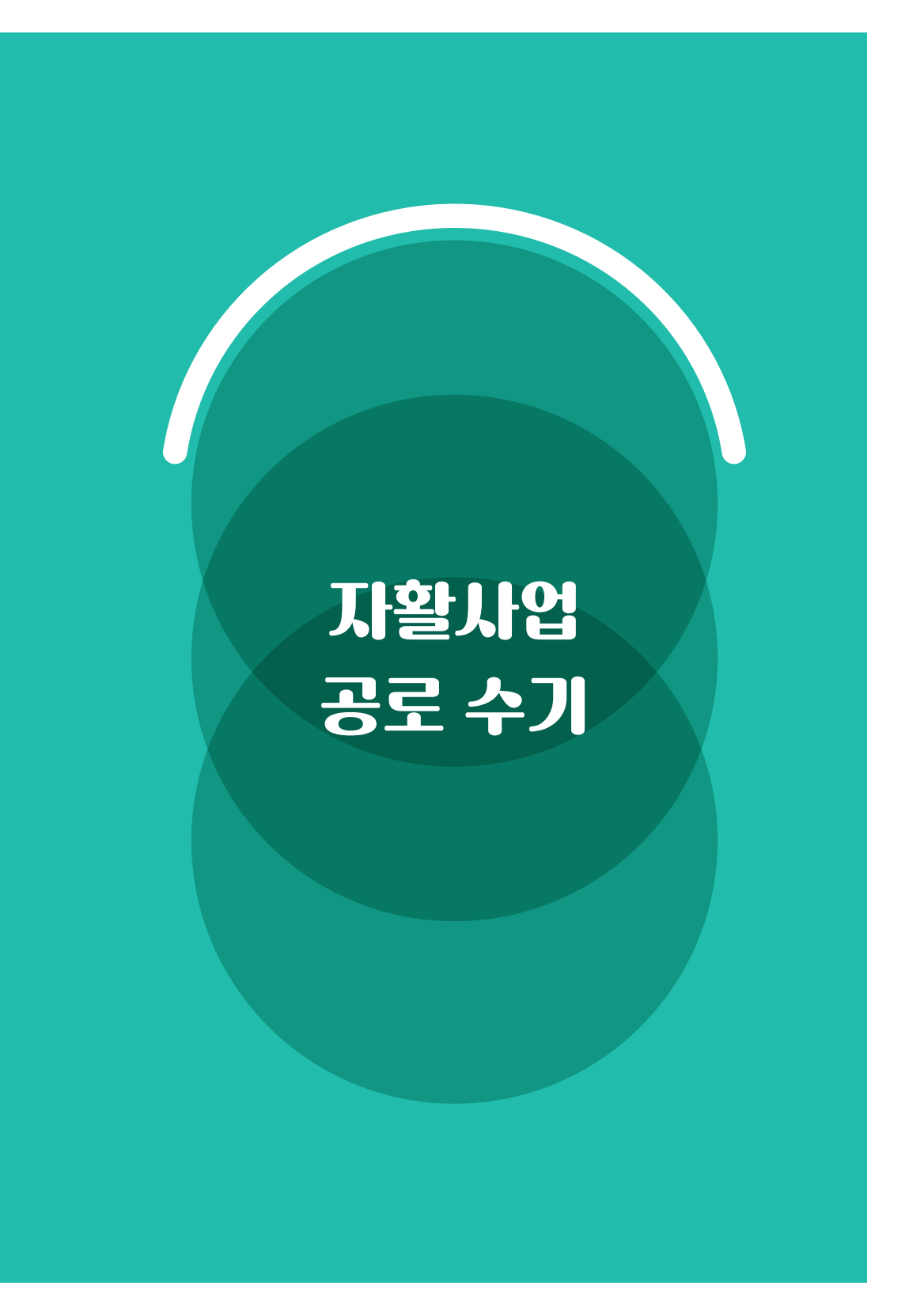
“희망을 키워준 통장”

지금까지의 내 꿈과 목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여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무엇이든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진 목표 또한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가 두렵다고 포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도전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오늘

자활 성공 · 공로 수기집



The background is a solid teal color. In the center, there are two overlapping circles of a darker teal shade. A thick white arc is positioned at the top, spanning across the upper part of the circles.

자활사업 공로 수기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전국 최초 자활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다

「오은지」경기

1. 조아용을 만나다

조아용은 2016년 2월, 용인시의 용(龍)에서 착안해서 시정 홍보를 위해 출시한 캐릭터이다. 이후 적극적으로 SNS에 활용하여 홍보에 이용하면서 조아용의 인기가 높아졌고, 시민들의 굿즈 판매 요청의 요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용인지역자활센터 「바늘세상」이라는 사업단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던 가방과 앞치마 등에 다양한 표정의 조아용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용인시에 자활센터 내 참여 주민들이 조아용을 활용한 자활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저소득층의 자립에 접목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용인시는 일반 기업에 위탁 수익사업 대신 자활센터 내 수급자들의 인력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자활과 자립을 위한 협약에 대한 의견 일치로 2022년 1월 캐릭터 사용승인 및 판매에 대해 단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꿈인가? 내가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다니....

지금까지 어느 자활센터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 굿즈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예산 수반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와 연결된 사업으로 자활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사업을 만들어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해보자 결심하였다.

우리엔겐 자활상품을 운영하던 2평 남짓 매장과 참여자 선생님들의 일손..... 그리고 나의 불타오르는 열정만 가지고....

2. 자활, 조아용과 함께 시작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주한 것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짧은 기간 동안 생산품 판매점을 캐릭터 판매점에 맞춰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것과 전문 디자인 지식이 없이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해야 하는 문제점이었다.

예산은 자활기금을 활용하고, 관내 사회 공헌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서원 재단에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받은 후원금, 용인시에서 캐릭터 대상으로 받은 상금을 기탁 받은 3천3백만 원으로 판매점 운영 준비를 시작하였다.

적은 예산으로 판매점 개소를 준비하다 보니 인테리어부터 가구, 소품, 전기 등을 하나하나를 직접 진행해야 했다. 판매점을 대충 오픈하는 건 용납할 수 없기에 잘 만들어 보려고 발품을 팔아 세심하게 고르고 골랐다.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공사업체 분께 ‘여보세요’보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올 만큼 무릎이 닳도록 간청하고 애원해서 2022년 4월 4일 「조아용in스토어」 개점 일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

반신반의로 출발한 조아용 사업은 ‘대박’이 났다. 시민들의 조아용 굿즈에 대한 인기는 상상이상이었다. 「조아용in스토어」 개점 날 구매를 하기 위한 손님들의

늘어선 줄은 돌고 돌았고, 매장에는 조아용 상품을 구입하면 저소득층 자활을 함께 도울 수 있다는 용인시민들의 뜨거운 눈빛과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반응은 계속되었고, 개점 4일 만에 준비했던 20여 종의 상품들이 품절 사태를 맞았다. 텅텅 빈 매장을 보면서 준비가 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 개점 7개월 만에 매출 2억을 달성하였다.

용인시장님도 “조아용과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과의 콜라보는 신의 한 수”라면서 “더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 “우리 조아용, 자활 조아용!” 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며 적극적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셨다.

3.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짜릿함

언제나 달콤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우선 상품 품목 개발이 어려웠고, 물품 확보를 위한 종잣돈도 부족했고, 상품 판로에 대한 고민이 쌓여갔다.

상품 개발은 매장에 구매하러 오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바로 상품 제작에 활용하고,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여름 시즌 상품 등의 이벤트 상품을 개발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상품 개발을 했다.

또한 용인시청 사업 부서와 사회복지 기관들이 시정홍보를 위한 조아용 굿즈를 활용한 주문이 폭주하면서 매출이 상승했고, 박람회나 축제 등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매출금을 올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활센터와 사업 홍보를 하면서 추가 주문이 물 밀듯 들어오면서 상품 개발비용에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또 다른 복병인 상품을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급한 대로 인근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서 상품을 만들었다. 장기간 이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관내 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과에 찾아가 자활사업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디자인 요청을 시도한 끝에 3D 형태의 페이퍼 토이 재능기부도 받아 상품으로 출시해 상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데 힘썼다

여기저기 어렵게 디자인 협조를 구하다가 용인시 일자리 정책과에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용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로 하나하나 해결이 될 때마다 안도감과 짜릿함을 느꼈다.

4. 자활센터의 존재를 널리 알린다!

나는 2019년 1월, 용인지역자활센터 내 지원 사업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을 시작했다. 원래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라는 직업을 선택했기에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보람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중에 자활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에서는 노인일자리와 비슷한 듯하지만 사업내용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름을 알게 되었다. 노인일자리는 필요한 곳에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수동적인 사업이라면,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회복지와는 다른 자활사업의 운영에 대한 흥미가 생겨 자활사업단을 맡게 되었다.

조아용 캐릭터를 활용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첫째는, 제작, 포장, 판매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주민들의 긍정적인 변화이며 둘째는, 지자체와 캐릭터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자활 사업 모델을 만들었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 사업단에 근무하다가 종료를 결심했던 참여 주민은 개점을 앞둔 조아용 판매장을 잠시 도움을 주러 왔다가 자활사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연결시켜 줘서 고맙다고 전하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업단에 애착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친절히 응대하면서 고객들은 감동을 실천하였다.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참여 주민은 매장 근무를 하면서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고, 환한 표정으로 마주 보고 대화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봉제를 담당하는 참여 주민은 물려드는 단체 주문에 실 틈 없이 생산품을 만들며 조아용이 꿈에서 나와서 쫓아다니는 꿈을 꿀 정도로 힘을 들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조아용을 보면 다시 힘을 내며 일한다고 한다. 또 다른 참여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던 분이 저희 사업단에 이동 후 상품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며 “아용이 아용이”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협화음을 낸 적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조아용 캐릭터를 활용한 자활사업은 참여 주민들에게 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했고, 바쁠수록 행복해진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 자활의 목표인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주인의식이 생기며 자활 의지를 고취 시키는 등 이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삶에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또한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단으로 리사이클백을 출시하고, 100%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분해봉투를 사용하는 등 지구 환경개선에 적극 동참하며 자활사업에 시대적 변화에 동참하면서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자활사업단이라는 부담감은 나의 열정과 노력과 사업 부서와의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겨내고,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추진하며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2022년 대한민국 산업혁신 박람회」의 용인시 홍보관에 조아용 굿즈 판매점을 운영하며,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용인자활센터의 존재를 널리 알리게 되었고,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사회복지사로서 최고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

5. 희망의 열매를!

우리 사업단은 각종 행사 부스 운영에 1순위 요청 대상이 되면서 될 만큼 인기가 높아졌고, 관내 기업의 담당자가 물품 구입을 위해 판매점에 방문했다가 자활센터의 취지를 듣고 후원으로 연결되는 등의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자체와 연계된 캐릭터 굿즈 사업은 자활사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고민하면서....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이 제2의 팽수를 넘어서길....

오늘도 난, 참여 주민의 꿈과 희망이 열매 맺는 그날을 꿈꾼다.

우수상

믿어요

「강다은」 경기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찬바람이 채 가시지않은 추운 봄날..

양평지역자활센터에서의 첫 근무가 시작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센터에 들어서자 언뜻 보아도 30명은 되어 보이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바쁜 와중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으려니 왠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나는 괜히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 9시가 조금 지나자 센터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갔나 했더니 각자 사업단으로 출근했다고 한다. 이게 나와 자활센터 참여자들과의 첫 만남이었다.

참여자들은 굳이 내가 센터직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한 이틀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아는 듯 했다. 그리고 입사 한달이 채 되지 않을 무렵, 나는 참여주민 한분 한분씩 개별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우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나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서이기도 했고,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하늘을 날기 위한 도약

나의 첫 내담자는 참여자 A씨였다. A씨는 만50세로 키가 크고 수줍음이 많은 예쁜 여자분이셨다. 그런데 A씨는 겉보기와 달리 몸이 많이 안좋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손등과 팔을 보니 온통 거칠고 상처가 많았다. A씨는 이유없이 몸이 붓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처가 생긴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 결핍이라고 하나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속상해했다. 본인의 몸도 안좋은데 노견을 2마리나 키우고 있어 강아지 약값으로만 매달 30만원씩 지출한다고 했다. 그만큼 사랑이 많고 따뜻한 분이였다. 그러나 다행히 양평지역자활센터에 온 이후로 나름대로 경제적 안정을 찾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건강 또한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다. 또 센터의 지원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가능한 빨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양평의 지역특성상 요양병원, 요양원 등이 대부분 거리가 상당히 멀고, 자차가 없으면 통근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컴퓨터가 서툴러 구인공고를 보는 것조차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라는 나의 질문에 A씨는 작은 목소리로 “운전면허를 따고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던 터라 이것까지 지원을 바라기가 미안하다고 말을 흐렸다.

참 다행이었다. 내가 만약 A씨에게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약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A씨는 매일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어쩌면 포기해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오히려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말해준 A씨에게 감사했고, 자립하고 싶은 욕구는 충만하나 현실에 부딪혀 혼자 고민하고 전전긍긍하였을 A씨가 안쓰러웠다.

상담이 끝난 후 나는 참여자A씨가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센터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현재 A씨는 나의 추천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담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다.

심마니가 경비원이 되다!

우리센터는 9시 정각이 되면 참여주민 모두가 각자 사업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참여주민들과 얼굴을 보려면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얼굴보기가 힘든 몇몇 참여자를 만나기 위해 직접 사업단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처음 가본 공방사업단에서 나는 열심히 종이가방을 접고 있는 참여주민 B씨를 만났다. 그 날, 공방의 공간이 협소하여 의자 두 개를 갖고 나와 공방 입구 앞 나무그늘 아래에 앉아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난다.

B씨는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취업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어렸을 적 우연한 기회로 산에 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에서 산삼이나 장뇌삼을 캐 팔면서 살았고, 그게 평생의 업이 되었다고 했다. 한 12년 전부터는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 사업자도 내고, 아름아름 소개받은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셨다. 그렇게 평생을 산에 오르며 살던 분이 코로나로 인해 거래가 줄면서 폐업하게 되었고, 사업자가 자동말소 되면서 정부지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업친데 덤친격으로 거주하던 집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고, 그 사정을 알게 된 주민자치센터의 도움으로 우리 센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화창한 날씨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나무그늘 아래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지..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인데, 어떻게 집 보증금마저 뺏어갈 수 있을까.. 마음이 아팠다.

B씨는 나에게 “평생 산에 오르며 생활했기 때문에 체력 하나는 자신있다. 남 밑에서 일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체력 하나는 자신있다고 하셨지만 내년이면 벌써 63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력서를 써도 운전면허 외에 이렇다 할 경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B씨라면 꼭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유는 바로 B씨가 가진 삶의 의욕과 자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그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채용공고를 보는 법도, 이력서를 쓰는 법도, 채용에 응시하는 법도 몰라 매일 산에 오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던 것 뿐이었다.

상담이 끝나고 나는 수시로 구인공고를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B씨의 집 인근에 급여도 꽤 많고 나이 제한이 없는 24시간 2교대 경비원 채용공고가 눈에 띄었다. 24시간 2교대 근무가 힘들진 않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어쩌면 아직도 가끔씩 산에 오르는 B씨에게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히려 잘된 일 일수도 있었다. 다행히 이 생각은 B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B씨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그 후로는 함께 이력서를 쓰고, 함께 증명사진을 찍고, 함께 면접을 보았다. 최종 합격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른다. 나의 떨리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B씨는 늘 밝은 얼굴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취업에 성공하였다.

지금도 종종 오후에 출근하는 날에는 센터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가는 B씨. 일이 힘든지 살이 많이 빠져 걱정이 되었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늘 말씀하신다. 최근에는 근무 중에 미니굴삭기를 배울 기회가 있는데, 이참에 굴삭기 자격증을 따고싶다고 하여 학원을 알아보주고 있다. 또 센터에서 곧 있을 취업준비교육 시간에 B씨가 짧은 강연도 할 예정이다.

조현병을 이겨낸 아버지

매일 아침 8시 50분.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이 사업단으로 출근하기 전, 이때가

센터가 가장 시끄럽고 북적이는 시간이다. 모두가 분주한 이 시간에 교육실 맨 뒷자리에서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앉아있는 C씨가 있었다. 이 날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C씨에게 나는 조용히 상담 요청을 하였다. C씨는 낯선 신입직원의 상담 요청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와 둘째아이가 앓고 있는 지병,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의 부담과 경제적 상황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C씨는 표정변화 하나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셨고, 그 모습이 나에게서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려 상담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상담을 통해 나는 C씨의 취업 가능성을 보았다. 표현이 서툴고 말수가 적지만 C씨의 말에는 책임감과 사명감, 끈기, 인내, 일에 대한 의욕과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상담이 끝난 직후, 나는 C씨의 관련서류들을 모두 찾아보았다. 그런데 자활근로 위탁의뢰서 내용에서 ‘정신과약 복용중(조현병)’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상담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닌다는 말은 들었지만 병명을 말하지 않아 ‘조현병’이라는 글을 보고 조금 놀랐으나, 상담을 통해 이미 취업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병명을 미리 알았다면 오히려 편견을 가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 스스로가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C씨의 구직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자차가 없기 때문에 집과 멀지 않은 직장, 미성년 자녀 2명 중 한 명은 당뇨와 고혈압 등의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급여가 높은 직장, 말과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단시간 내 많은 업무를 요하는 직업은 맞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무렵, 먼저 취업에 성공한 B씨의 회사에서 또 구직공고가 올라왔다. 마침 C씨의 집도 그 근처였고, 급여도 높았고, 무엇보다 장시간 근무지만 빠른 업무를 요하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곧바로 회사에 전화해 조심스레 C씨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담당 사회복지사이며, C씨의 취업역량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나 센터에서 지각 한번 한 적 없는 성실한 분”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렸고 그 반응은 꽤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C씨에게 전하였고, 하루동안의 생각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C씨를 붙잡고 설득하고 응원해 주었다.

다음날, C씨가 나를 찾아와 이력서를 써보겠다고 한 후로는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면접에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C씨와 함께 웃는 연습도 했다. 그렇게 C씨는 취업에 성공하였고, 현재 근무 5개월차가 되었다.

C씨는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B씨와 교대근무 중에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매일 아침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출근을 한다. C씨가 복용하는 약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지만 C씨는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단 한번도 거른적이 없다고 한다.

“업무에 잘 적응하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몸은 힘들지만 두 아이에게 넉넉히 용돈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C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사회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도 백점인 사람이다.

나는 우리 센터의 모든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단지 살아온 세월만큼 세상이 두려워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것 뿐..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다.

우수상

우리들의 블루스

『최수안』 강원

삶의 끝자락, 절정, 혹은 시작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달고도 쓴 인생을 응원합니다!

“쉽지 않은 곳이구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수년 간 일하다가 자활 현장에서 일하게 된 내가 처음으로 했던 생각이다. 지역주민을 클라이언트 혹은 조직화를 위한 마을의 주민이라고 생각하며 서비스 계획 및 지원을 해오던 과거와 달리 지역자활센터에서 만나는 지역주민은 나와 함께 일해야 하는 동료이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활·자립을 도와야 하는 나의 클라이언트이기도 했다. 자활센터 종사자이자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참여주민들을 이중적인 관점으로 대하며 그 안에서 밸런스를 찾고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다른 복지 현장에서 일하던 나에게 가장 큰 변화이자 시험이 되었다. 이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자활현장에서 일하며 가져야 할 태도, 자세 등을 몇 가지 원칙으로 세워 그 원칙을 지키며 일해보기로 했다.

원칙 1. 참여주민을 편견 없이 대하고 나의 동료로 인정하자.

복지현장에서 일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50대-60대의 고령자, 심리·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사회복지사라면 가지지 말아야 할 편견이지만 직접 실무를 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닌 일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생각이기에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활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하지만 자립과 자활이 목적인 참여주민이라면 이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 나와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여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타 참여주민 혹은 전임자 등 타인의 의견을 배제하려고 했으며, 직접 당사자와 소통하고 개별적인 그들의 인생 이야기와 생각 자체를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업무이야기 외에도 안부를 묻고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 개인으로서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원칙 2. 매출 상승과 참여주민의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자.

그동안 일했던 복지 현장에서는 수익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적기도 했고 더욱이 주민과 함께 사업체를 꾸리고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에 사업단 운영을 처음 맡았을 때 앞이 캄캄하기도 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가 낯설고 참여주민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 등이 불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심지어 참여주민들은 낮은 업무강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사업단 매출

향상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주민의 대부분이 50~60대였고, 지병 혹은 경증의 장애가 있거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 해결책을 찾다가 나만의 방식으로 자활사업을 만들어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 매출과 참여주민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자활근로사업단도 결국에는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고 매출을 상승시키고 성공적인 기업체로 독립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사례이기에 매출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매출에만 집중했을 때 참여주민의 업무강도에 대한 불만과 사업단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소 참여주민의 건강 및 컨디션 체크와 가정·일상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일상화했다. 참여주민 간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매출은 완만하게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거래업체와의 논의를 통한 단가 상승이나 서비스 견적 금액 향상 등을 통해 노동 강도에 적합한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자연스레 매출이 소폭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 되자 참여주민들의 만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원칙 3. 나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어느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관리자에 대한 평가는 있기 마련이고, 단순히 일을 잘하는 관리자도 좋지만 더불어 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자연스레 관리자를 따르는 직원 및 동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했다.

참여주민의 입장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담당하는 팀장은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리자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고 이 평가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렇기에 평소 업무에도 신경을 쓰지만 참여주민을 대하는 언행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이 도덕적이고 서로 존중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했으며,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정제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참여주민에게 너무 화가 나는 기분에 몸이 부들거리며 떨린 적도 있었고, 혼자 있을 때는 거친 말과 욕설로 실망감과 허탈함을 내뿜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과 논의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추스릴 수 있었고 참여주민을 대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감동의 순간들 - 우리들의 블루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일을 하자 자활사업과 참여주민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생겼다. 참여주민 간 갈등이 생겨 서로 폭행을 하며 싸우던 참여주민이 이제는 팀장님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은 사업단에 출근하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고 아침 출근길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준다. 자활사업단에서 끝까지 잘 참여하다 보면 사회로 나아가 일반 사업체에 취직도 하고 탈수급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빠짐없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며칠 전 거친 언행으로 불만을 표현하던 참여주민이 오늘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꽃 한 송이를 건네줄 때는 허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과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의지가 되기도 한다. 그야말로 달고도 쓴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매출 단가 상승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해주는 참여주민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작업장에 방문할 때마다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 음료며, 빵, 간식을 내 가방에 밀어 넣어 주는 참여주민의 모습에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보람과 이들을 끝까지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사실 자활사업의 현장은 내가 학부 시절 배웠던 복지 대상자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주민들이 원활하게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한다는 부분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조직화이자 마을 공동체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자활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 나에게도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커리어에 정점이 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며 현재를 인생의 정점 혹은 끝자락, 또는 시작점이라고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참여주민들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현재를 인생의 정점 혹은 끝자락, 또는 시작점이라고 모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그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응원할 것이고 나의 원칙들을 지키며 나만의 방식으로 참여주민들과 함께 블루스를 추는 듯 화합해 성공적인 자활의 길로, 인생의 정점으로 나아갈 것이다.

욕심의 반대편에는,

『국준혁』광주

이립이라는 나이에 들어서기 전 이제껏 걸어온 길에 대해 돌아볼 계기가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 머무는 곳에 안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도중,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게 된 좋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자 자활사업의 길을 걸어보게 되었다.

자활사업의 첫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내가 바라본 시선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와 더 없이 든든한 ‘동료’라는 이름의 관계, 그리고 가까이 만나는 ‘이웃사촌’이라는 이름의 실타래처럼 다양한 관계성을 가진 참여 주민들이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와 그로 인한 실직의 아픔 그리고 부양의 의무에 따른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신체적·정서적 불안정을 가진 체, 근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방법을 몰라 빈곤의 늪에서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직면 할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자활사업단의 팀장으로써 ‘지지와 성원’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재활약 할 수 있게 돕는

슈퍼바이저(supervisor) 역할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빈곤과 불안정성을 내포한 참여 주민들의 연령과 성별이 다름을 과연 잘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가 선한 영향력을 납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더불어 '말게 될 사업단의 활동 영역과 목적의식이 과연 나와 맞을까' 하는 생각을 자활의 길을 걷는 실무자라면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기에 말이다.

처음 말게 된 사업단은 착즙주스와 샐러드를 제조 및 판매하는 수익형 사업단이었다.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꼼꼼한 성격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 주저함이 없는 것이 재능이라면 재능이겠거니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특기라고 생각한 나는 '경청과 수용'이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참여 주민의 자립 의지 향상과 삶의 의욕 증진이라는 나의 개인적인 목적의식에 참여 주민들에게 언제나 웃음으로 맞이하며 관계 형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사업단은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적어진 매장과 확진 세에 따라 요동치는 케이터링 주문 건, 신선제품을 취급하는 사업단이라 늘어가는 변질 및 폐기품, 물류비의 변동 속에서 요동치는 원자재 값, 상품의 품질과 맛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과 개선, 건의 속에서 '나는 자활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활동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질책과 내·외부 품평회, 광역자활센터와 컨설팅을 통한 교육 훈련 등으로 사업단을 강하게 더더욱 강하게 몰아치며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역시나 그럴 때 마다 경청과 수용은 이미 저 멀리 떠나 '지시와 독선'이라는 이름으로 참여 주민과 담당 실무자 간의 갈등, 참여 주민들 간의 투쟁 등이 벌어지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채 사업단의 목표도 저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역할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반장의 이름을 반납하고자 하는 참여 주민과 면담을 통해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과연 '팀장'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단을 맡아서 내가 착즙주스를 한 번 짜봤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채 찾아온 지역 행사에서 생산을 하던 참여 주민들이 월차를 사용해 다수의 공백이 생기자 이번엔 사업단의 역할에 한 몫 거들고자 생산 현장에 들어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착즙주스의 과정은 멀리서 보았을 때 세척-분쇄-생산-포장의 순서로 이루어져 별일이 아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세척도 애벌세척-칼슘파우더세척-헹굼의 3단계와 껍질 제거-변질 부분 제거-씨앗 제거-절단-분쇄 등의 5단계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스를 만들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성격보다 자활‘의지’사업단을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저 면담을 통해 참여 주민들 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갈등과 투쟁을 달래고 봉합하며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는 그 생각들이, 현장에 있음으로써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남을 탓하기 전에 본인을 돌아보라”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서 현장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상품성 개선을 하고자 시장 조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샐러드만 먹었던 적이 있었다. 64kg의 체중이 56kg의 체중으로 감량한 효과는 덤으로 얻었지만 중구난방이던 메뉴의 품질과 품목들을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각각의 장점들을 최대한 조합하고자 참여 주민들과 직접 만들어보고 평가하며 개선점을 지금도 앞으로도 쭉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다른 곳에 말하기 민망한 사업단의 수익과 성과에 때론 말 못할 고충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기업으로 나아갈 발판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참여 주민들도, 내 자신도 민망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늘어가는 매출과 변화된 맛에 대한 시장의 호평, 먼 곳에서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방문객들을 직접 마주하며“일하기 싫어 죽겠다.”는 말을 늘어놓던 참여 주민들이“더욱 더 많은 주문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어디에서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팀장’이라는 직책은 수평적 소통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심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자활 기업으로의 출범을 위해 참여 주민들과 사업단의 성과공개 정보를 가지고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가는 하나의 ‘참여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참여 주민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비 자활기업이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시자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실무자 역할, 그리고 참여 주민 간의 역할 분담, 사업단 규칙 재정리, 신제품 출시 목표 수립 등의 과정을 욕심으로 가득 찬 과거에서 벗어나 욕심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의 이 흐름은 잠깐일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된 시선도 있지만 이미 전담 관리자의 역할에서 한 명의 참여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한 참여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비’ 자활기업이 아닌 진정한 협동조합의 자활기업을 꿈꾸며 내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다른 분이시네요. 우리는 개인이 아닌 사업단의 소속이잖아요?”

참여자가 나에게 했던 말은 아직도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 어떠한 시련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취업을 위한 용기있는 도약의 한걸음, 희망으로 나아 가다

『김혜선』 충남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면서 자활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지역자활센터에 연계하는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로써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은 업무로 생각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자활 취업 성공률이 낮아 2022년 6월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 자활 참여 중인 대상자들의 중간 현황을 파악하고 취업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대상자들과 면담을 갖기 시작했다.

그중 C't는 자활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이었다. 개인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C't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려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덩달아 나도 과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대로 멈출 수 없었다. C't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C't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무엇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포를 형성하고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C't는 초기에는 취업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나는 C't가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C't에게 다양한 취업처 제공을 위해 여러 일자리 구직 홈페이지를 찾았고 직접 문의도 했다. 이를 토대로 C't의 관심분야의 다양한 취업처 목록을 제공하고 C't에게 안내하였다. 이때 C't의 피드백으로 취업 분야에 대한 생각도 알 수 있었고 다시 취업처를 같이 탐색하고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C't는 어머니에게 강한 애정을 나타냈다.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이와 관련한 취업을 하기보다는 먼저 어머니와 상의를 하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C't는 어렸을 적 따돌림을 당해 친구들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라고 했다. 이에, 가장 급선무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C't가 어머니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다. C't에게서 C't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어머니와 약속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연락이 닿기가 쉽지 않았다. 전화를 여러 번 해도 회신이 오지 않았다.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도 어머니는 깜박하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번번히 약속을 취소했다. 그렇지만 어머니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화와 문자를 남기고 직접 여러 번 다시 약속을 잡고 다시금 집을 찾아갔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셨다. 그동안 문을 못 열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다. 대화를 해보니 C't의 어머니는 탈북민이었고 이혼을 하셨다. 어머니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집안에만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잘 먹지도 못해서 몸에 기력도 없고 힘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상황은 악화되어 가난의 굴레는 계속되었다고 했다. 이제야 연락이 닿기 어려웠던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먼저 C't의 어머니에게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센터를 연계했다. C't의 어머니 말씀처럼 어머니는 아위신 상태였고 본인의 상황이 어려워 C't에게 신경쓰기란 쉽지 않았다.

이렇수록 어머니에게 많은 설득과 진심을 전하는 게 중요해 보였다. 그래서 C't에게는 어머니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과 함께 C't의 관심 분야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관련 여러 취업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주저했다. 본인의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활말고는 C't가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은 설득과 기나긴 대화 끝에 결국 어머니는 C't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응원하는 쪽을 선택하셨다. 이 작은 변화는 나비효과같이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C't는 어머니와 취업 관련 대화를 하며, 둘의 사이가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어머니의 관심으로 C't는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다. 어머니와 상의 끝에 C't는 그동안 자활센터에서 취득한 지게차 운반 자격증 1차 합격의 경험을 토대로 어느 대기업 산하 화학원료운반회사에 취직을 했다. 일자리에 취업한 C't는 몰라보게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C't는 자기의 돈으로 어머니의 치료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한 추후에 자격증을 더 추가하여 이 분야에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고 했다. C't에게 삶의 방향과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활 일자리 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지 몰랐고, 막상 도전해보니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라고 말이다. 자활 참여자의 이러한 태도와 화답이 나에게는 크게 와 닿았고 감동이었다. 또한, 이 분야의 일을 하게 된 동기를 상기시켜 주었고 자활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나는 자활 참여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지역 내 자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자활센터와의 협업으로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자활사업을 기초로 자활 참여자들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이와 연계하여 취·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직원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충추는 고래처럼 자활을 위한 힘찬 움직임을 위하여

『최인혜』 부산

“안녕하세요~ 000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자활근로 참여자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인사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게이트웨이 담당자 최인혜입니다. 항상 새로운 분들을 만난다는 설렘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참여자가 사업단으로 참여하기 전에 2달간 참여하며 자활근로에 참여하기에 앞선 문제사항이 무엇인지 참여자의 개인별자립경로(IAP)를 근거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ISP)을 같이 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참여자가 사업단 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설명하다.”

대부분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지역주민은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오는 분입니다. 자활근로의 경우 60개월 참여가 가능하며, 자활사업단 참여하는 기간에 스스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의 게이트웨이 과정은 2개월간 크게 공통과정교육과 개별상담, 사업단 소개 및 사업단 현장실습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가장 큰 게이트웨이 중점방안은 참여자별 맞춤 지원을 위해 월 2회 개별 상담 및 월 6회로 이루어져 있는 공통과정교육(법정의무교육) 및 외부 취업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의 큰 특징은 “사업단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 소개의 경우, 각 사업단 담당자가 사업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업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 관심이 없던 참여자도 사업단 소개를 통해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으며 참여자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참여자가 희망하면 현장실습을 통해 사업단 근로를 해볼 기회를 제공하여 게이트웨이 담당자, 사업단 담당자 및 참여자가 동시에 사업단 참여에 적합한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써주는 곳이 마땅치 않는데..... 자활사업단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게이트웨이 담당자로서 성취감이랄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든 탈수급을 위해 힘들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참여자를 보는 걸까요? 현재 청소대행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최○○ 씨는 1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으로 이혼하신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참여하였고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 젊은 시절의 사진과 함께 참여하셨던 내용들이 수기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과거, 취업으로 인해 종결하신 이후, 10여 년의 기간동안 일반기업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탈수급 하였으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였고 다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였고 다시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참여자는 초기상담시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에서 반찬사업단으로 있다 자활기업으로 설립한 “The 찬”을 실습 희망하였습니다. 자활기업 면접 및 실습진행의 여부는 자활기업 대표와 참여자 간 따로 면접시간을 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기업 대표와 면담 이후, 희망근로시간이 맞지 않아서 다시 IAP를 활용하여 ISP를 재수립하였습니다.

본인의 장점인 “꼼꼼함”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사업단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손 관절이 부어있어 근로가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가졌습니다. 사업단 특성상 신체를 많이 움직여야한다는 특성이 있어 사업단 참여에 대한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청소대행사업단에 참여하시는 자활근로참여자 중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참여자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으신 분도 참여하고 있다고 안내 하였습니다. 실습을 고민하고 있던 참여자에게 “뭐든 경험해보는 것이 좋죠.”라며 청소대행사업단 실습을 독려하였습니다. 이후, 3일간의 실습으로 참여자는 맡겨졌던 청소업무에 대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실습 이후 상담시, 청소대행사업단 참여를 꼭 하고 싶으시다며 의사를 밝혔고 사업단 전환 전 고민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단 전환 전 사례회의를 갖다.”

지역간 각 센터별로 사례회의 진행방법이 다르지만,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의 사례회의 경우 참여자를 대변하여 게이트웨이 담당자인 저와 사업단 담당자, 슈퍼비전을 해주실 센터장님, 실장님 및 중간관리자 및 자활사례관리사가

참여합니다. 참여자의 기본면접기록지, 자활사정지, IAP, ISP, 현장실습평가서를 기반으로 하여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기에 앞서 참여자의 과거력 및 사업단 현장실습평가서에 기반한 피드백을 하면서 원활히 사업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사업단 전환을 확정 지으면 사례회의 결과를 참여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이후 게이트웨이 종결상담을 위해 참여자분을 만났으며 사례회의 결과에 기반하여 상담을 통해 최종 점검하는 단계를 가졌습니다.

“사업단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참여자는 청소대행사업단 전환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온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하루에 두 곳 청소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센터 사무실 청소업무를 하고 계시고 있어 다른 참여자분들보다는 빈도수가 높게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뜻깊은 말이 기억에 납니다.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기 전에는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 고정된 할 일이 없어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고 함께할 수 있는 동료 참여자분들이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여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얻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을 위한 한 걸음”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게이트웨이 담당자는 1년간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누구보다 참여자를 먼저 보는 장점을 살려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면서

사업단 참여 3개월 후 실시하는 자활사례관리사와 개별 상담에 앞서, 사업단 참여 중 힘든 상황은 없는지, 한 번 더 관심 가져주고 참여자와 유대감을 형성함과 함께 주기적인 상담을 함께하면서 내면적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다시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 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여자분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넘치는 게이트웨이 담당자로서 늘 참여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오늘

발행일 • 2023년 2월

발행처 • 보건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135

충정빌딩 9층, 10층

T E L • 02-3415-6900

F A X • 02-3415-6990

“나를 포기하는 방법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겼다.”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앞서 서술한 과정을 조금씩 밟아나가며,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 대상 수상자 이수현 후기 中 -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9 791192 832203
ISBN 979-11-92832-20-3 (PDF)

비매품/무료
05060